WEBVTT

00:00:10.120 --> 00:00:11.701
16강이에요.

00:00:11.801 --> 00:00:13.551
이번에는 문법 요소
마지막 시간이고요.

00:00:13.651 --> 00:00:16.217
이번 시간에는 피동 그리고
사동 그리고 인용 표현까지

00:00:16.317 --> 00:00:17.508
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7.608 --> 00:00:19.314
첫 번째, 피동 표현.

00:00:19.414 --> 00:00:21.916
우선 피동하고 사동의
개념을 알고 넘어갑시다.

00:00:22.016 --> 00:00:25.119
피동문과 사동문은 서로 반대인가요?

00:00:25.219 --> 00:00:26.742
서로 반의어입니까?

00:00:26.842 --> 00:00:27.951
아니에요, 여러분.

00:00:28.051 --> 00:00:30.321
그러니까 피동문하고 사동문을
같이 공부하다 보니까

00:00:30.421 --> 00:00:33.417
이 둘의 관계가 서로 반의어라고
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.

00:00:33.517 --> 00:00:37.097
피동문의 반대는
능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,

00:00:37.197 --> 00:00:41.295
그다음에 사동문의 반대는
주동문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.

00:00:41.395 --> 00:00:44.339
차근차근 공부를 하겠지만,
물론 어떤 문장을 봤을 때

00:00:44.439 --> 00:00:47.339
주동문하고 능동문은
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00:00:47.439 --> 00:00:51.011
주동, 주체가 되어서 능동,
알아서 하는 거니까요.

00:00:51.111 --> 00:00:53.967
그런데 피동이라고 하는 건
당할 피 자이기 때문에

00:00:54.067 --> 00:00:55.852
행위를 당해서 하는 거예요.

00:00:55.952 --> 00:00:58.908
그다음에 사동문이라고 하는
건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.

00:00:59.008 --> 00:01:03.162
그러니까 행위를 당해서 하는
피동문의 반대는 알아서 하는

00:01:03.262 --> 00:01:04.685
능동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.

00:01:04.785 --> 00:01:07.386
그다음에 누군가에게
시켜서 하는 행동,

00:01:07.486 --> 00:01:11.423
즉 사동의 반대는 자기가 하는,
즉 주체가 스스로 하게 하는

00:01:11.523 --> 00:01:14.754
그런 주동문의 경우로 반대로
잡아주셔야 됩니다.

00:01:14.854 --> 00:01:17.728
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피동
표현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.

00:01:17.828 --> 00:01:18.817
뭐라고요?

00:01:18.917 --> 00:01:20.091
행위를 당하는 거예요.

00:01:20.191 --> 00:01:23.820
지금 첫 번째 문장, 뽀로로가
크롱을 업었다고 하는 이 문장은

00:01:23.920 --> 00:01:25.100
능동문입니다.

00:01:25.200 --> 00:01:29.371
즉, 뽀로로가 스스로
크롱을 업어요.

00:01:29.471 --> 00:01:32.191
그런데 이 문장을 피동문으로
만들어보려고 합니다.

00:01:32.291 --> 00:01:33.175
어떻게요?

00:01:33.275 --> 00:01:34.898
이렇게요.

00:01:34.998 --> 00:01:38.557
크롱이 뽀로로에게
업히었다라고 바꿨습니다.

00:01:38.657 --> 00:01:41.965
물론 뭐 이제 보통 우리는
업혔다 이렇게 쓰긴 하지만

00:01:42.065 --> 00:01:45.932
재료를 보게 되면, 형태소를 나누게
되면 이 히가 끼어들어간 거죠.

00:01:46.032 --> 00:01:53.023
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히가
접미사, 피동 접미사죠.

00:01:53.123 --> 00:01:56.403
이 피동 접미사라는 걸 넣어주면서
피동화 만들어줬는데.

00:01:56.503 --> 00:01:59.948
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
되는 건 어순의 변화예요.

00:02:00.048 --> 00:02:01.527
문장의 어순이 바뀌었어요.

00:02:01.627 --> 00:02:05.453
원래 능동문에서의
주어가 뭐가 됐다?

00:02:05.553 --> 00:02:09.614
부사어가 돼요.

00:02:14.731 --> 00:02:16.859
주어가 뭐가 됩니까?

00:02:16.959 --> 00:02:19.966
부사어가 됐어요.

00:02:20.066 --> 00:02:24.257
또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
있었던 것이 뭐가 됐어요?

00:02:24.357 --> 00:02:26.296
주어가 돼요.

00:02:26.396 --> 00:02:28.049
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.

00:02:28.149 --> 00:02:31.998
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
서술어의 변화가 있어야 돼, 그렇죠?

00:02:32.098 --> 00:02:35.701
이 서술어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
있지만 그중의 하나의 재료는

00:02:35.801 --> 00:02:38.064
접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

00:02:38.164 --> 00:02:40.511
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
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죠.

00:02:40.611 --> 00:02:41.489
모르겠어요.

00:02:41.589 --> 00:02:44.801
이 문장에서 이 크롱이
뽀로로에게 업히는 걸 원했는지

00:02:44.901 --> 00:02:46.538
원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.

00:02:46.638 --> 00:02:48.890
정보를 알 수 없지만
어쨌든 당한 겁니다.

00:02:48.990 --> 00:02:50.678
크롱이 업힘을 당한 거죠.

00:02:50.778 --> 00:02:52.940
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.

00:02:53.040 --> 00:02:55.374
그러면 그다음 문장도
능동문인데

00:02:55.474 --> 00:02:57.725
피동문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.

00:02:57.825 --> 00:02:59.075
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.

00:02:59.175 --> 00:03:03.075
일단 주어가 부사어의
자리에 놓여야 되겠고.

00:03:03.175 --> 00:03:06.990
그다음에 목적어였던 것이,
능동문의 목적어였던 것이

00:03:07.090 --> 00:03:08.906
주어의 자리에 와주면 되겠네요.

00:03:09.006 --> 00:03:09.987
볼까요?

00:03:10.087 --> 00:03:11.663
바둑 동아리가, 그렇죠.

00:03:11.763 --> 00:03:14.919
바둑 동아리를이 바둑
동아리가로 주어로 바뀌고,

00:03:15.019 --> 00:03:18.945
그다음에 차돌이는이라고 하는
만든 주체가 뭐가 됐어요?

00:03:19.045 --> 00:03:24.020
차돌이에 의해 형태를 취하는

부사어 기능으로 바뀌었죠.

00:03:24.120 --> 00:03:27.701
그래서 이것이 주어이고, 이것이
부사어의 기능을 만들어주면서

00:03:27.801 --> 00:03:30.595
그다음에 뒤쪽 부분에
서술어의 변화가 생겼는데.

00:03:30.695 --> 00:03:32.686
위에 거는 좀 달라요,
지금 보니까.

00:03:32.786 --> 00:03:36.457
얘는 접미사를 넣어주는 구성이라면
얘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.

00:03:36.557 --> 00:03:40.111
어지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
구조를 이용하게 됩니다.

00:03:40.211 --> 00:03:41.729
이런 방식이에요.

00:03:41.829 --> 00:03:44.270
우선 우리가 첫 페이지에 좀
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

00:03:44.370 --> 00:03:46.345
문장의 어순이 바뀐다는 것.

00:03:46.445 --> 00:03:49.968
그래서 능동문의 주어는
피동문의 부사어.

00:03:50.068 --> 00:03:53.252
그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가
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

00:03:53.352 --> 00:03:55.989
서로 대응되는 능동과
피동의 관계입니다.

00:03:56.089 --> 00:04:00.743
그러다 보니까 어떤
능동문이 무조건 대응하는

00:04:00.843 --> 00:04:02.408
피동문이 있는 건 아니고.

00:04:02.508 --> 00:04:09.350
또 모든 피동문을 다 능동문으로
대응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

00:04:09.450 --> 00:04:14.894
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04:14.994 --> 00:04:19.298
지금 첫 번째 문장, 그는 법전을
읽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

00:04:19.398 --> 00:04:21.081
능동문이죠.

00:04:21.181 --> 00:04:22.985
자기가 알아서 하는
그런 문장입니다.

00:04:23.085 --> 00:04:25.397
그런데 바꿔보려고
해요, 피동문으로.

00:04:25.497 --> 00:04:29.265
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
여기에 있는 이 능동문의 주어가

00:04:29.365 --> 00:04:30.773
부사어가 되어줘야 돼.

00:04:30.873 --> 00:04:32.354
그러면 그에게가 되어줘야 되겠죠.

00:04:32.454 --> 00:04:34.763
그다음에 법전을이라는
목적어는 뭐가 됩니까?

00:04:34.863 --> 00:04:36.545
주어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.

00:04:36.645 --> 00:04:38.905
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.

00:04:39.005 --> 00:04:40.772
법전이, 그렇죠?

00:04:40.872 --> 00:04:42.952
주어로 변하고 그다음에 그에게.

00:04:43.052 --> 00:04:44.665
다음 피동 접미사를 이용했어.

00:04:44.765 --> 00:04:46.122
히를 지금 넣어준 거예요.

00:04:46.222 --> 00:04:49.192
그래서 읽힌다를 넣어준
거예요, 읽힌다.

00:04:49.292 --> 00:04:50.928
법전이 그에게 읽힌다.

00:04:51.028 --> 00:04:52.188
이상하지 않아요?

00:04:52.288 --> 00:04:54.642
다음 문장 보겠습니다.

00:04:54.742 --> 00:04:56.937
그 선수는 욕을 먹었다라고
하는 문장입니다.

00:04:57.037 --> 00:05:01.512
그런데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려고
하니까 욕을 주어로 잡아야죠.

00:05:01.612 --> 00:05:05.732
그래서 욕이 그 선수에게 먹히었다.

00:05:05.832 --> 00:05:08.374
욕이 그 선수에게
먹혔다, 무슨 소리야?

00:05:08.474 --> 00:05:11.239
그럼 이번에는 피동문을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05:11.339 --> 00:05:13.007
지금 이 문장은 피동문이에요.

00:05:13.107 --> 00:05:14.719
옷이 목에 걸리었다.

00:05:14.819 --> 00:05:16.281
된 겁니다, 그렇게
당한 거예요, 그렇죠?

00:05:16.381 --> 00:05:19.632
걸다에다 리를 지금 넣었어요.

00:05:19.732 --> 00:05:21.154
리라고 하는 피동 접미사를.

00:05:21.254 --> 00:05:22.920
그래서 걸렸다, 피동문인데.

00:05:23.020 --> 00:05:26.439
얘를 그러면 주어로 바꾸려면
부사어가 주어가 되어야죠.

00:05:26.539 --> 00:05:27.959
부사어가 주어가 됩니다.

00:05:28.059 --> 00:05:29.807
목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.

00:05:29.907 --> 00:05:32.776
그다음에 주어였던 건
목적어로 바꿔야 되겠죠.

00:05:32.876 --> 00:05:35.100
옷을 걸었다.

00:05:35.200 --> 00:05:36.834
목이 옷을 걸었다.

00:05:36.934 --> 00:05:37.857
이상하잖아요.

00:05:37.957 --> 00:05:38.861
다음.

00:05:38.961 --> 00:05:40.742

이번에는 부사어가 아예 없어요.

00:05:40.842 --> 00:05:42.186
피동문인 건 분명한데.

00:05:42.286 --> 00:05:45.171
안개가 걷다에 히가
지금 들어갔습니다.

00:05:45.271 --> 00:05:46.242
걷히었다.

00:05:46.342 --> 00:05:47.877
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.

00:05:47.977 --> 00:05:49.047
당한 겁니다.

00:05:49.147 --> 00:05:52.347
그런데 이때 이 피동문을
주동문으로 바꾸려고 하니까

00:05:52.447 --> 00:05:54.431
어쨌든 주어는 목적어로
바꿔야 되죠.

00:05:54.531 --> 00:05:55.800
안개를이 됩니다.

00:05:55.900 --> 00:05:58.372
그런데 여기에 부사어가 없으니까

00:05:58.472 --> 00:06:01.223
적절한 주어를 뭔가
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.

00:06:01.323 --> 00:06:02.679
그러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06:02.779 --> 00:06:04.105
안개를 조금씩 걷었다.

00:06:04.205 --> 00:06:05.191
히를 빼주고 걷었다.

00:06:05.291 --> 00:06:06.930
누가요?

00:06:07.030 --> 00:06:08.392
신이.

00:06:08.492 --> 00:06:11.262
물론 만약에 안개가
신에게 조금씩 걷혔다.

00:06:11.362 --> 00:06:12.975
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.

00:06:13.075 --> 00:06:16.570
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응되는
능동문의 피동문 대응이 어렵고

00:06:16.670 --> 00:06:20.006
이러한 피동문은 괜찮은데
능동문으로 대응시키는 건

00:06:20.106 --> 00:06:22.087
좀 어색하다는 느낌이
들 수 있다는 거죠.

00:06:22.187 --> 00:06:29.536
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보통 보면
행위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, 그렇죠?

00:06:29.636 --> 00:06:34.383
이런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정
명사와 관련된 추상 명사

00:06:34.483 --> 00:06:37.722
이런 것들을 지금 주어로
잡아버리게 되면 얘가 주체성을

00:06:37.822 --> 00:06:39.256
띠기 어려워지는 거죠.

00:06:39.356 --> 00:06:40.625
행위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,
영어가 아닌 이상.

00:06:40.725 --> 00:06:47.730
그래서 국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능동,
피동의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

00:06:47.830 --> 00:06:49.678
꽤 많다는 걸 보시고.

00:06:49.778 --> 00:06:51.407
실제로 문제로 적용되는
경우가 있어요.

00:06:51.507 --> 00:06:53.166
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

00:06:53.266 --> 00:06:54.745
이런 일을 해보셔야
된다는 얘기입니까?

00:06:54.845 --> 00:06:58.227
이렇게 능동과 피동문을 그 문장에서
뒤집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.

00:06:58.327 --> 00:07:02.248
뒤집어 보고 이게 잘 되는지
어색한지 이걸 판단하는

00:07:02.348 --> 00:07:04.854
그런 것을 요구하는
문제가 나오긴 해요.

00:07:04.954 --> 00:07:06.240
확인해 보시고.

00:07:06.340 --> 00:07:09.571
그다음, 그럼 이제 얘네는
안 된다는 건데.

00:07:09.671 --> 00:07:12.736
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
되는 건 피동의 방법들을

00:07:12.836 --> 00:07:14.041
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14.141 --> 00:07:14.966
이건 외우셔야 돼요.

00:07:15.066 --> 00:07:16.461
공부를 하시는데 외우세요.

00:07:16.561 --> 00:07:18.837
피동의 방식은 총
네 가지가 있어요.

00:07:18.937 --> 00:07:20.812
그런데 크게 대비를
하게 되면 두 가지.

00:07:20.912 --> 00:07:23.395
파생적 피동하고, 통사적
피동이 있습니다.

00:07:23.495 --> 00:07:26.378
먼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
것은 접미사를 이용해요.

00:07:26.478 --> 00:07:30.731
그래서 어근에다 접미사를
더해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.

00:07:30.831 --> 00:07:34.490
그래서 단어를 만들어서 이 단어를
가지고 피동문을 만들어요.

00:07:34.590 --> 00:07:37.470
첫 번째 재료는 바로
이, 히, 리, 기.

00:07:37.570 --> 00:07:40.489
이거는 초성을 따서
외운다, 의미가 없죠.

00:07:40.589 --> 00:07:42.279
그냥 이, 히, 리,
기 자꾸 반복하세요.

00:07:42.379 --> 00:07:43.783
이, 히, 리, 기,
이, 히, 리, 기.

00:07:43.883 --> 00:07:45.009
뭔가 흥겹지 않아요?

00:07:45.109 --> 00:07:45.959

이히리기.

00:07:46.059 --> 00:07:49.667
그래서 이, 히, 리, 기라고 하는
이 접미사가 중간에 끼게 되면

00:07:49.767 --> 00:07:51.544
얘가 피동성을 갖게 됩니다.

00:07:51.644 --> 00:07:54.058
예문들 좀 보도록 할게요.

00:07:54.158 --> 00:07:56.272
전부 다 피동문이에요, 지금.

00:07:56.372 --> 00:07:59.335
어머니의 눈물에 형의
고집이 꺾였다.

00:07:59.435 --> 00:08:01.251
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?

00:08:01.351 --> 00:08:03.920
원형을 따져보면 꺾다.

00:08:04.020 --> 00:08:08.518
원래 형의 고집을 꺾었다.

00:08:08.618 --> 00:08:11.930
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서 형의
고집을 꺾었다라고 하는

00:08:12.030 --> 00:08:15.396
그런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
느낌이 나는 피동성이잖아요.

00:08:15.496 --> 00:08:18.692
그런데 여기에 꺾다라고 하는 놈에
뭐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?

00:08:18.792 --> 00:08:20.271
이가 지금 들어간 거죠.

00:08:20.371 --> 00:08:22.189
꺾이 그다음에 뒤에 었다.

00:08:22.289 --> 00:08:24.372
과거 선어말 어미,
그다음에 종결 어미.

00:08:24.472 --> 00:08:27.833
여기에 있는 이가 이걸 피동을 위한
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00:08:27.933 --> 00:08:29.199
그다음 문장.

00:08:29.299 --> 00:08:31.418
나도 모르게 경품에 낚였다.

00:08:31.518 --> 00:08:33.606

뭐가 들어갔죠?

00:08:33.706 --> 00:08:34.829
낚다.

00:08:34.929 --> 00:08:37.920
낚다, 이렇게 되면 얘는 능동,
주동의 기능을 갖겠지만,

00:08:38.020 --> 00:08:41.867
낚이 이렇게 해서
었다 이렇게 해서.

00:08:41.967 --> 00:08:43.257
었 빨게요, 그냥.

00:08:43.357 --> 00:08:44.459
기본형으로 써보겠습니다.

00:08:44.559 --> 00:08:45.951
그래서 얘는 낚이다, 꺾이다.

00:08:46.051 --> 00:08:46.919
피동이죠?

00:08:47.019 --> 00:08:52.086
그다음에 광장에 촛불 든 사람들이
하나둘씩 모인다라고 얘기했어요.

00:08:52.186 --> 00:08:54.584
그러면 얘는 뭐예요?

00:08:54.684 --> 00:08:57.988
모인다, 모이다,
모이다가 맞지 않나요?

00:08:58.088 --> 00:08:59.941
모다가 아니잖아요, 모다가.

00:09:00.041 --> 00:09:03.011
원형이 뭘까요?

00:09:03.111 --> 00:09:05.432
모으다.

00:09:05.532 --> 00:09:08.995
사람들을 모으다라고 할 때
모으다가 기본형이야.

00:09:09.095 --> 00:09:11.441
그런데 그 모으다에
뭐가 들어간 거죠?

00:09:11.541 --> 00:09:13.366
이가 들어가.

00:09:13.466 --> 00:09:16.871
그리고 이제 다가 들어간 형태예요.

00:09:16.971 --> 00:09:20.474
이게 결합되면서, 이게 결합되면서

으 탈락이 벌어지게 되고

00:09:20.574 --> 00:09:23.775
그다음에 모이다가
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.

00:09:23.875 --> 00:09:27.192
여기에는 현재형 종결 어미이기
때문에 이렇게 ㄴ 다.

00:09:27.292 --> 00:09:29.470
이렇게 해서 형태소
나눠줘야 되겠죠.

00:09:29.570 --> 00:09:31.199
이것도 지금 이가
들어가 있는 거예요.

00:09:31.299 --> 00:09:34.978
모이다가 형태소가 이렇게 모으,
이, 그다음에 ㄴ 다 해서

00:09:35.078 --> 00:09:36.551
세 가지로 끊어지게 됩니다.

00:09:36.651 --> 00:09:40.698
이것도 지금 결국 뭐냐면
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

00:09:40.798 --> 00:09:42.858
피동형을 지금 만들어준 거고요.

00:09:42.958 --> 00:09:48.107
그다음에 모든 은행은 오후
4시면 문이 닫힌다고 했어요.

00:09:48.207 --> 00:09:49.936
그러면 얘는 뭐가 더해졌습니까?

00:09:50.036 --> 00:09:51.916
닫에다 뭐가 더해졌죠?

00:09:52.016 --> 00:09:53.204
히.

00:09:53.304 --> 00:09:55.091
닫다에다 히를 지금 넣었죠.

00:09:55.191 --> 00:09:56.292
그래서 닫히다.

00:09:56.392 --> 00:09:57.736
그렇게 된 거야, 역시.

00:09:57.836 --> 00:09:59.771
그다음, 밟혔어.

00:09:59.871 --> 00:10:00.785
그러면 어떻게 돼요?

00:10:00.885 --> 00:10:05.343

밟다라고 하는 단어에다 밟다,
그다음에 히를 넣어주죠.

00:10:05.443 --> 00:10:07.608
그래서 밟히었다.

00:10:07.708 --> 00:10:09.901
이렇게 된 거죠, 이것도.

00:10:10.001 --> 00:10:11.390
계속 지금 당한 거예요.

00:10:11.490 --> 00:10:13.254
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.

00:10:13.354 --> 00:10:15.324
지금 여기의 개념을 여러분
생각하셔야 됩니다.

00:10:15.424 --> 00:10:21.288
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~게 되다.

00:10:21.388 --> 00:10:24.005
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랑
치환이 가능해져야 돼요.

00:10:24.105 --> 00:10:28.385
~게 되다, ~어지다, ~아지다,
그렇게 당하다, 이런 의미입니다.

00:10:28.485 --> 00:10:31.348
그래서 꺾이게 되는 거,
낚이게 되는 거죠.

00:10:31.448 --> 00:10:32.677
그다음에 모여지는 겁니다.

00:10:32.777 --> 00:10:35.462
그다음에 이제 닫혀지는 거고요.

00:10:35.562 --> 00:10:37.472
그다음에 밟히게 되는
거예요, 역시.

00:10:37.572 --> 00:10:40.543
그런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
밟히게 되다라는 표현은

00:10:40.643 --> 00:10:41.660
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.

00:10:41.760 --> 00:10:45.254
이따 보겠지만 이중 피동이라고
해서 어법상 맞지 않아요.

00:10:45.354 --> 00:10:48.600
그런데 우리가 얘가 피동인지
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

00:10:48.700 --> 00:10:51.494
그렇게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,

뭔가 좀 강한 느낌으로

00:10:51.594 --> 00:10:55.594
피동적인 느낌이 연결이 되는지를
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.

00:10:55.694 --> 00:10:56.745
여기도 마찬가지.

00:10:56.845 --> 00:11:04.892
가장 마지막 장이 접다에다 접히었다
해서 접히가 지금 들어갔죠.

00:11:04.992 --> 00:11:06.293
접히다.

00:11:06.393 --> 00:11:07.673
접다, 접히다, 그렇게 된 거죠.

00:11:07.773 --> 00:11:08.853
접어진 겁니다.

00:11:08.953 --> 00:11:11.928
그래서 여기에는 이가 들어가 있는
경우와 히가 들어가 있는 경우

00:11:12.028 --> 00:11:13.105
예를 좀 봤고요.

00:11:13.205 --> 00:11:14.109
그다음 리, 기도 좀 볼까요?

00:11:14.209 --> 00:11:17.140
리, 기.

00:11:17.240 --> 00:11:19.685
머리띠에 리본이 달렸다.

00:11:19.785 --> 00:11:21.281
이거 어떻게 연결됐겠습니까?

00:11:21.381 --> 00:11:24.201
달다, 리본을 달다 할 때 달다.

00:11:24.301 --> 00:11:25.836
이건 능동 주동이라고 봐야 되겠죠.

00:11:25.936 --> 00:11:27.540
그런데 여기에 뭐가
지금 더해진 거야?

00:11:27.640 --> 00:11:29.957
리가 더해진 거죠.

00:11:30.057 --> 00:11:31.351
달리다.

00:11:31.451 --> 00:11:33.031
무엇이 달게 되는 거예요.

00:11:33.131 --> 00:11:34.097

그렇게 당한 겁니다.

00:11:34.197 --> 00:11:35.198
다음요.

00:11:35.298 --> 00:11:38.639
대동제를 연 게 아니라
열리게 된 거죠.

00:11:38.739 --> 00:11:40.569
그래서 열리다.

00:11:40.669 --> 00:11:43.773
열리다.

00:11:43.873 --> 00:11:45.526
역시 리가 지금 들어갔고요.

00:11:45.626 --> 00:11:46.475
그다음에 여기는요?

00:11:46.575 --> 00:11:47.842
헐다, 집을 헐다.

00:11:47.942 --> 00:11:51.433
그렇게 된 거니까 헐리다.

00:11:51.533 --> 00:11:53.831
이거는 그대로 쓰여
있네요, 그렇죠?

00:11:53.931 --> 00:11:56.864
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기를
쓴 예를 좀 들어봤어요.

00:11:56.964 --> 00:11:58.525
끊기다.

00:11:58.625 --> 00:12:01.214
끊다, 신문 끊다, 구독
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

00:12:01.314 --> 00:12:04.860
여기다 기를 써서 끊기다
이렇게 형성되죠.

00:12:04.960 --> 00:12:06.315
그다음에 이거는요?

00:12:06.415 --> 00:12:07.790
내가 뭘 물건을 담아.

00:12:07.890 --> 00:12:10.800
나 담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?

00:12:10.900 --> 00:12:12.350
그렇게 된 거야.

00:12:12.450 --> 00:12:13.741
그러면 담기다.

00:12:13.841 --> 00:12:17.780
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지금 사전에서
찾게 되면 나와요, 안 나와요?

00:12:17.880 --> 00:12:18.867
나오죠.

00:12:18.967 --> 00:12:20.101
당연히 나오죠.

00:12:20.201 --> 00:12:21.447
여러분, 전에 설명드렸어요.

00:12:21.547 --> 00:12:24.478
접미사 용언에서 접미사가
결합되는 구조하고

00:12:24.578 --> 00:12:26.592
그다음에 어미가 결합되는 구조.

00:12:26.692 --> 00:12:27.770
특히나 선어말 어미.

00:12:27.870 --> 00:12:28.963
구분하셔야 돼요, 그렇죠?

00:12:29.063 --> 00:12:37.291
여기 예를 들면 달리다 하면 또 이건
줄 알고 착각할 수 있겠다, 그렇죠?

00:12:41.696 --> 00:12:43.088
이거, 이거.

00:12:43.188 --> 00:12:44.078
보세요.

00:12:44.178 --> 00:12:45.012
얘 사전에 나온다, 안 나온다?

00:12:45.112 --> 00:12:45.794
나온다.

00:12:45.894 --> 00:12:47.743
얘 사전에 나온다, 안 나온다?

00:12:47.843 --> 00:12:48.903
안 나온다.

00:12:49.003 --> 00:12:50.113
어떤 차이다?

00:12:50.213 --> 00:12:51.973
선어말 어미, 과거 선어말 어미.

00:12:52.073 --> 00:12:53.071
얘는 접미사.

00:12:53.171 --> 00:12:56.075
접미사가 더해진 것은
어근에 접미사가 더해지면

00:12:56.175 --> 00:12:57.720
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.

00:12:57.820 --> 00:12:59.220
파생어로, 그렇죠?

00:12:59.320 --> 00:13:01.627
그러니까 얘는 사전에
등재가 되어 있어요.

00:13:01.727 --> 00:13:03.282
단, 한번 찾아보세요.

00:13:03.382 --> 00:13:05.284
열리다를 찾으면 어떻게
되어 있느냐?

00:13:05.384 --> 00:13:09.115
열다의 피동사라고
되어 있단 말이야.

00:13:09.215 --> 00:13:12.141
그러니까 열리다의 뜻
자체를 풀어내지 않아요.

00:13:12.241 --> 00:13:15.678
그냥 열다의 피동사라고 얘기해주고,
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죠?

00:13:15.778 --> 00:13:17.328
열다를 찾아보라는 얘기야.

00:13:17.428 --> 00:13:21.766
그리고 열다의 의미에서 그것의
피동적인 의미만 더해주면 돼라고

00:13:21.866 --> 00:13:23.430
이제 사전에서 정보를 준다는 거죠.

00:13:23.530 --> 00:13:24.759
다 그런 식이에요.

00:13:24.859 --> 00:13:28.530
얘네는 달다의 피동사, 열다의
피동사, 헐다의 피동사 이런 식으로

00:13:28.630 --> 00:13:30.744
명시해주고 있습니다, 사전에.

00:13:30.844 --> 00:13:32.422
다 나와야 돼요, 얘네는.

00:13:32.522 --> 00:13:33.542
그다음요.

00:13:33.642 --> 00:13:34.733
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

00:13:34.833 --> 00:13:37.214
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.

00:13:37.314 --> 00:13:40.303
여기에 빼앗기가 지금
더해진 거죠, 빼앗기다.

00:13:40.403 --> 00:13:42.049
좋아요.

00:13:42.149 --> 00:13:44.256
그렇게 해서 이, 히, 리, 기가
첫 번째 재료가 되겠습니다.

00:13:44.356 --> 00:13:45.287
다시요.

00:13:45.387 --> 00:13:47.447
피동 접미사 이, 히, 리, 기.

00:13:47.547 --> 00:13:50.810
두 번째 접미사 구조는 이건데.

00:13:50.910 --> 00:13:52.429
되다예요, 되다.

00:13:52.529 --> 00:13:55.079
그런데 이 되다는 어떤
식으로 결합하느냐.

00:13:55.179 --> 00:13:59.853
우리 파생성이 굉장히 강한 접미사가
바로 하다라고 얘기했었죠.

00:13:59.953 --> 00:14:03.396
우리가 공부하다, 결혼하다,
이런 식으로 해서

00:14:03.496 --> 00:14:07.085
어근에다 하다만 더해주면
용언들이 막 만들어져.

00:14:07.185 --> 00:14:09.533
그런데 그렇게 하다가
만들어지는 단어들이

00:14:09.633 --> 00:14:12.530
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가게 되면
1만 5000개가 넘어가는데.

00:14:12.630 --> 00:14:17.257
그중에 또 되게 많은 수가
되다랑 붙는 경우가 많아요.

00:14:17.357 --> 00:14:21.326
그래서 이 되다가 붙는다는
얘기는 물론 예를 들면

00:14:21.426 --> 00:14:25.309
가결하다, 가결되다.

00:14:25.409 --> 00:14:26.839
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

00:14:26.939 --> 00:14:28.851
청구하다, 청구되다.

00:14:28.951 --> 00:14:30.226
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.

00:14:30.326 --> 00:14:32.579
그런데 결혼하다, 결혼되다
이렇게는 안 써요.

00:14:32.679 --> 00:14:35.668
그러니까 하다가 되는 단어들
중에서 꽤 많은 수가

00:14:35.768 --> 00:14:40.405
또 되다가 가능한 경우인데, 이
되다가 붙게 되면 하다와 달리

00:14:40.505 --> 00:14:42.095
피동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.

00:14:42.195 --> 00:14:45.648
그래서 이 되다를 딱 접미사
어근 뒤에다 붙여주면서

00:14:45.748 --> 00:14:47.386
단어를 파생시킬 수 있어요.

00:14:47.486 --> 00:14:50.928
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간하다
이런 단어 있지만,

00:14:51.028 --> 00:14:52.088
선발하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.

00:14:52.188 --> 00:14:54.919
그런데 선발되다, 발간되다 이런
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

00:14:55.019 --> 00:14:57.715
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
얘네는 전부 다 뭐가 된다?

00:14:57.815 --> 00:14:59.437
피동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

00:14:59.537 --> 00:15:04.035
그래서 문장에 보면 컴퓨터가
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.

00:15:04.135 --> 00:15:05.335
감염되었다.

00:15:05.435 --> 00:15:08.328
명사 어근에다 되다를
지금 붙이는 구조예요.

00:15:08.428 --> 00:15:10.292
다음, 원피스 마지막 책.

00:15:10.392 --> 00:15:11.927

언제 발간될까 정말.

00:15:12.027 --> 00:15:15.052
그래서 원피스의 마지막
책이 발간되다.

00:15:15.152 --> 00:15:16.325
그렇죠?

00:15:16.425 --> 00:15:17.791
그러면 피동이 만들어진 겁니다.

00:15:17.891 --> 00:15:20.905
여기에서 유기견들이
보호되다, 그렇죠?

00:15:21.005 --> 00:15:22.153
보호되다.

00:15:22.253 --> 00:15:25.299
뒤에 고 있다는 보조 용언이고,
그냥 이것만 딱 따져보시면 되죠.

00:15:25.399 --> 00:15:28.789
보호되다, 보호하다의 피동문이
되는 거예요, 이러면.

00:15:28.889 --> 00:15:33.806
만약에 이걸 문장을 바꾼다고 한다면
유기견들을 보호하다가 되겠죠.

00:15:33.906 --> 00:15:37.407
주어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가
주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.

00:15:37.507 --> 00:15:39.832
여기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한다
이렇게 쓸 수 있어요.

00:15:39.932 --> 00:15:41.672
다음, 선발되다.

00:15:41.772 --> 00:15:43.312
역시나 피동문 만들어졌죠.

00:15:43.412 --> 00:15:45.110
그다음에 충전되다.

00:15:45.210 --> 00:15:45.944
이해되십니까?

00:15:46.044 --> 00:15:47.098
첫 번째 재료는 뭐였다?

00:15:47.198 --> 00:15:48.192
이, 히, 리, 기.

00:15:48.292 --> 00:15:49.650
두 번째 재료는?

00:15:49.750 --> 00:15:53.484

어근에다 되다를 붙여서
피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00:15:53.584 --> 00:15:56.727
지금 이렇게 파생적 피동이라는
표현을 쓴다는 얘기는

00:15:56.827 --> 00:16:01.782
접미사 구조가 어근에 붙어서
파생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.

00:16:01.882 --> 00:16:03.065
그렇죠?

00:16:03.165 --> 00:16:06.491
그런데 통사적 피동은 단어가
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16:06.591 --> 00:16:10.086
그냥 통사적 구조가 좀 길어져.

00:16:10.186 --> 00:16:13.765
그래서 하나의 어절이 더 늘어날
거야, 이걸 보여주거든요.

00:16:13.865 --> 00:16:15.236
역시나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.

00:16:15.336 --> 00:16:20.747
첫 번째 재료는 지금 막 본 파생적
피동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하지만

00:16:20.847 --> 00:16:21.837
분명 달라요.

00:16:21.937 --> 00:16:23.683
게 되다예요, 게 되다.

00:16:23.783 --> 00:16:25.524
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

00:16:25.624 --> 00:16:28.404
아까는 명사 어근에다 곧바로
되다를 붙여 쓰는 거지만

00:16:28.504 --> 00:16:32.177
얘는 용언 어간 뒤에
연결어미 게를 쓰고,

00:16:32.277 --> 00:16:35.642
그다음에 보조 용언으로
되다를 쓰겠다는 거예요.

00:16:35.742 --> 00:16:39.357
이러면 먹게 되다, 그러면
이게 한 단어는 아니잖아요.

00:16:39.457 --> 00:16:40.704
사전에 등재될 수 없어요.

00:16:40.804 --> 00:16:41.928

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

00:16:42.028 --> 00:16:45.843
앞에 나와 있던 충전되다, 선발되다
이런 것들은 사전에 등재가 돼도

00:16:45.943 --> 00:16:49.388
여기에 있는 먹게 되다 이거를 사전에
등재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.

00:16:49.488 --> 00:16:54.411
그래서 먹다를 게 되다를 붙임으로
해서 피동문을 만들긴 하지만

00:16:54.511 --> 00:16:56.792
그것이 단어를 생성하는
기능은 아니기 때문에

00:16:56.892 --> 00:17:00.312
그거는 통사적 길이만 늘어났다,
통사적 피동이라고 얘기해요.

00:17:00.412 --> 00:17:02.999
그런 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7:03.099 --> 00:17:06.984
폭설로 산장에서 하루 더
묵었다 이럴 수 있는 건데.

00:17:07.084 --> 00:17:11.341
그렇게 됐다, 그렇게 당했다, 그렇게
만들어지다의 의미를 쓰기 위해

00:17:11.441 --> 00:17:13.694
묵게 되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

00:17:13.794 --> 00:17:14.969
피동문이 만들어졌어요, 이러면.

00:17:15.069 --> 00:17:18.920
다음, 매실청을 잘못
보관해서 다 썩게 되었다.

00:17:19.020 --> 00:17:20.355
그렇게 됐다는 겁니다.

00:17:20.455 --> 00:17:21.652
역시나 피동성이죠.

00:17:21.752 --> 00:17:24.062
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어를
가르치게 되었어요.

00:17:24.162 --> 00:17:25.394
누군가에 의해서.

00:17:25.494 --> 00:17:27.624
이거 내가 마음대로 가르치는
건 아니라는 거죠.

00:17:27.724 --> 00:17:32.423

교수가, 예를 들면 원장이 나로
하여금 이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

00:17:32.523 --> 00:17:35.554
그렇게 되었다, 당했다,
이런 의미로 지금 썼고요.

00:17:35.654 --> 00:17:36.477
다음요.

00:17:36.577 --> 00:17:38.508
수비수의 어이없는 자책골로
우리가 지게 되었다.

00:17:38.608 --> 00:17:40.797
당한 거예요.

00:17:40.897 --> 00:17:42.984
이 수비수 때문에, 그렇죠?

00:17:43.084 --> 00:17:44.754
그래서 이렇게 피동성을
만들어줬고요.

00:17:44.854 --> 00:17:48.953
다음, 그가 춤추는 모습을 한번
보면 그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.

00:17:49.053 --> 00:17:52.201
보면 안 좋아할 수 없게
되는 거야, 그렇죠?

00:17:52.301 --> 00:17:53.331
안 좋아할 수 없어.

00:17:53.431 --> 00:17:54.674
무조건 그렇게 당하는 거야.

00:17:54.774 --> 00:17:56.721
지금 보시면 고민할 거 없어요.

00:17:56.821 --> 00:17:59.739
이렇게 게 되다의 형태를
취해주는 순간 이 문장은 뭐다?

00:17:59.839 --> 00:18:01.488
피동문이다, 아시겠어요?

00:18:01.588 --> 00:18:02.696
피동문이다.

00:18:02.796 --> 00:18:05.372
그럼 통사적 피동
두 번째 재료인데.

00:18:05.472 --> 00:18:07.439
아지다, 어지다 재료입니다.

00:18:07.539 --> 00:18:10.569
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
주목하셔야 되는 건

00:18:10.669 --> 00:18:16.544
통사적 피동은 단어가 만들어지는
건 원래 아니라고 했어요.

00:18:16.644 --> 00:18:20.668
그래서 얘도 지금 ~하게 되다,
이렇게 묵게 되다, 썩게 되다,

00:18:20.768 --> 00:18:23.444
가르치게 되다, 지게 되다, 이게
단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

00:18:23.544 --> 00:18:26.197
그냥 늘어나서 활용해준 거죠.

00:18:26.297 --> 00:18:30.699
그런데 이 아지다, 어지다의
경우에도 원래는 연결어미가

00:18:30.799 --> 00:18:36.029
이 아나 어이고, 뒤에 나와 있는
지다가 보조 용언의 기능이기 때문에

00:18:36.129 --> 00:18:38.128
띄어 써야 되겠죠.

00:18:38.228 --> 00:18:43.016
그런데 띄어쓰기 규칙에 의하면
연결어미가 본 용언과 보조 용언

00:18:43.116 --> 00:18:45.883
사이에 연결어미가 아나 어일
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?

00:18:45.983 --> 00:18:47.347
붙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.

00:18:47.447 --> 00:18:49.072
그런데 얘가 좀 특이해.

00:18:49.172 --> 00:18:51.285
뭐냐면 명시되어
있어요, 이 부분이.

00:18:51.385 --> 00:18:55.978
이 지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이
뒤에 붙을 때는 안 띄어.

00:18:56.078 --> 00:18:57.897
아예 띄지 않아.

00:18:57.997 --> 00:18:59.646
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

00:18:59.746 --> 00:19:01.175
그래서 아예 안 띄어요.

00:19:01.275 --> 00:19:04.001
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
쓰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

00:19:04.101 --> 00:19:06.105
이 아지다, 어지다는
그냥 붙여 써요.

00:19:06.205 --> 00:19:08.925
그래서 아지다, 어지다라고
저도 이렇게 붙여 쓴 거고요.

00:19:09.025 --> 00:19:11.635
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단어는

00:19:11.735 --> 00:19:13.285
사전에 등재가 되어
있는 것도 있어요.

00:19:13.385 --> 00:19:15.358
그런데 어떤 거는 사전에
등재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.

00:19:15.458 --> 00:19:18.550
그것의 기준은
국립국어원에서 교수님들이

00:19:18.650 --> 00:19:21.985
또는 전문가들이 이건 더 많이 쓰는
것 같아요, 넣어줍시다 이런 거고.

00:19:22.085 --> 00:19:24.268
그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.

00:19:24.368 --> 00:19:28.209
어쨌든 아지다, 어지다의 구조는
붙여 쓴다고 기억하시면 되고

00:19:28.309 --> 00:19:30.408
피동을 만들어준다는
것도 알아두시면 돼요.

00:19:30.508 --> 00:19:35.473
즉, 댐을 허물자 탁했던
강물이 맑아졌다.

00:19:35.573 --> 00:19:39.825
맑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
아지다가 지금 더해져서

00:19:39.925 --> 00:19:42.471
아지었다 해서 졌이 된
거잖아요, 그렇죠?

00:19:42.571 --> 00:19:44.432
이렇게 재료가 들어갔죠.

00:19:44.532 --> 00:19:47.791
다음, 둘은 어느새 좋아하는
음식마저 같아졌다.

00:19:47.891 --> 00:19:52.804
같다에다 연결어미 아지다,
아지었다 이렇게 해서 아졌다.

00:19:52.904 --> 00:19:54.257
이렇게 또 들어왔죠.

00:19:54.357 --> 00:19:55.339
다음.

00:19:55.439 --> 00:19:58.275
더워지다는 어떻게
지금 들어간 거예요?

00:19:58.375 --> 00:19:59.518
덥다죠, 덥다.

00:19:59.618 --> 00:20:03.817
더하기 어지다에다 이제
연결어미 고를 쓴 건데

00:20:03.917 --> 00:20:06.224
우리 용언 공부할 때 했었죠.

00:20:06.324 --> 00:20:08.114
ㅂ 불규칙 용언.

00:20:08.214 --> 00:20:11.714
그래서 이 ㅂ이 우로 바뀌어서
여기에 붙어서 더워지고

00:20:11.814 --> 00:20:12.769
이렇게 된 거죠?

00:20:12.869 --> 00:20:15.977
역시나 이 어지 부분이 찾아지죠.

00:20:16.077 --> 00:20:16.975
그다음요.

00:20:17.075 --> 00:20:20.064
마술사가 쥐고 있던 지폐가
갑자기 없어졌다.

00:20:20.164 --> 00:20:22.031
없다에 어지다 지금 들어가죠.

00:20:22.131 --> 00:20:25.388
그다음에 늦다에 어지다가 들어갔죠.

00:20:25.488 --> 00:20:30.025
그래서 이렇게 맑아졌다, 같아졌다,
더워졌다, 없어졌다, 늦어졌다

00:20:30.125 --> 00:20:32.653
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지다의
구조가 더해진 구조들

00:20:32.753 --> 00:20:35.836
전부 다 피동문이 된다는 겁니다.

00:20:35.936 --> 00:20:38.347
문장의 뜻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.

00:20:38.447 --> 00:20:41.456
전부 다 그렇게 되는
거야, 당하는 거야.

00:20:41.556 --> 00:20:44.212
그래서 이렇게 재료
네 가지를 공부했어요.

00:20:44.312 --> 00:20:45.770
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

00:20:45.870 --> 00:20:47.958
파생적 피동 두 가지 뭐였어요?

00:20:48.058 --> 00:20:51.884
이, 히, 리, 기랑
그다음에 어근+되다.

00:20:51.984 --> 00:20:55.496
그다음에 통사적 피동으로는
첫 번째가 ~하게 되다.

00:20:55.596 --> 00:20:58.282
그리고 두 번째가
아지다, 어지다인데.

00:20:58.382 --> 00:21:00.248
이번에 이제 그러면 사동 표현.

00:21:00.348 --> 00:21:03.292
피동 표현 부분에서 이중 피동 표현은
좀 뒤쪽에서 공부를 해봅시다.

00:21:03.392 --> 00:21:05.046
먼저 이제 사동 표현 또 가볼게요.

00:21:05.146 --> 00:21:07.000
사동 그러면 이제 시키다라는 거죠.

00:21:07.100 --> 00:21:08.185
행위를 시켜요.

00:21:08.285 --> 00:21:09.734
반대는 주동이라고 했습니다.

00:21:09.834 --> 00:21:13.305
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
누군가에게 시켜서 한다.

00:21:13.405 --> 00:21:15.625
이 문장은 주동문이 되겠네요.

00:21:15.725 --> 00:21:17.954
그는 시합을 앞두고
3일간 굶었어요.

00:21:18.054 --> 00:21:19.520
자기가 한 거야, 그냥.

00:21:19.620 --> 00:21:25.494
그런데 이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

시켜서 하는 행위가 되면

00:21:25.594 --> 00:21:27.334
그가 하는 건 맞는데.

00:21:27.434 --> 00:21:30.881
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
하는 행위가 되어야 돼요.

00:21:30.981 --> 00:21:33.158
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.

00:21:33.258 --> 00:21:35.073
사동주가 생겨야 돼요.

00:21:35.173 --> 00:21:37.013
그러니까 새로운 주어가
나와야 돼, 무조건.

00:21:37.113 --> 00:21:38.452
시키는 사람이 나와야
될 거 아니에요.

00:21:38.552 --> 00:21:40.877
그래서 이런 식으로.

00:21:40.977 --> 00:21:43.048
새로운 사동주가 등장합니다.

00:21:43.148 --> 00:21:44.765
사동주.

00:21:44.865 --> 00:21:47.844
이걸 이제 사동 주어라고
해서 사동주라고 해요.

00:21:47.944 --> 00:21:49.506
등장했어요.

00:21:49.606 --> 00:21:51.643
꼭 코치는이 아니어도
상관없겠지만, 문장에서.

00:21:51.743 --> 00:21:56.042
그러고 나서 잘 보셔야 됩니다.

00:21:56.142 --> 00:21:57.746
뭐로 변했죠?

00:21:57.846 --> 00:22:02.660
주어가 목적어가 돼요.

00:22:02.760 --> 00:22:04.524
이 변화가 중요하죠.

00:22:04.624 --> 00:22:08.610
그리고 굶었다에서
뭐가 일어났습니까?

00:22:08.710 --> 00:22:10.437
굶기었다.

00:22:10.537 --> 00:22:12.027
기가 지금 들어갔죠.

00:22:12.127 --> 00:22:13.076
뭐야, 기?

00:22:13.176 --> 00:22:14.958
아까 이, 히, 리,
기 피동 아니었어?

00:22:15.058 --> 00:22:16.857
이게 좀 고민되죠.

00:22:16.957 --> 00:22:19.340
이, 히, 리, 기가
사동일 수도 있어요.

00:22:19.440 --> 00:22:21.671
여기에서는 사동으로 쓰인 거예요.

00:22:21.771 --> 00:22:22.626
생각해 보세요.

00:22:22.726 --> 00:22:24.680
굶겼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?

00:22:24.780 --> 00:22:25.993
아니면 그렇게 한 겁니까?

00:22:26.093 --> 00:22:31.236
지금 코치가 굶게 한
거예요, 굶게 된 거예요?

00:22:31.336 --> 00:22:32.720
굶게 한 거죠.

00:22:32.820 --> 00:22:33.899
그렇게 만들었죠?

00:22:33.999 --> 00:22:34.942
그렇게 시켰죠?

00:22:35.042 --> 00:22:36.397
당한 게 아니라, 그렇죠?

00:22:36.497 --> 00:22:37.765
코치가 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.

00:22:37.865 --> 00:22:41.949
그래서 코치가 여기에 나와
있는 그를 굶게 만든 거예요.

00:22:42.049 --> 00:22:45.441
그래서 이때의 기는 피동
접미사가 아니라 사동 접미사라고

00:22:45.541 --> 00:22:46.889
해줘야 된다는 거죠.

00:22:46.989 --> 00:22:49.375

이렇게 해서 사동문을
만드는 거였고.

00:22:49.475 --> 00:22:50.952
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.

00:22:51.052 --> 00:22:52.855
소작인들이 곡식을 거둬요.

00:22:52.955 --> 00:22:55.066
자기가 주동이 돼서
알아서 하는 거예요.

00:22:55.166 --> 00:22:59.460
그런데 이 문장을 지금 이제
사동문으로 만들려고 하면

00:22:59.560 --> 00:23:02.136
당연히 또 새로운 사동주가
등장해야 됩니다.

00:23:02.236 --> 00:23:05.026
소작인이라고 했으니까
지주 정도가 좋겠네요.

00:23:05.126 --> 00:23:09.703
그래서 지주는 소작인들에게
곡식을 걷게 했다고 했어요.

00:23:09.803 --> 00:23:12.503
선생님, 여기에 있는 주어가
목적어가 안 나왔는데요?

00:23:12.603 --> 00:23:14.173
그건 상관없어요.

00:23:14.273 --> 00:23:19.225
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
주목해야 되는 건

00:23:19.325 --> 00:23:22.364
어쨌든 여기에 목적어가
원래 있었잖아요.

00:23:22.464 --> 00:23:24.335
이거예요.

00:23:24.435 --> 00:23:27.110
우리가 주목해야 되는
건 이 부분이에요.

00:23:27.210 --> 00:23:30.933
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
필요하다는 겁니다.

00:23:31.033 --> 00:23:32.169
다시요.

00:23:32.269 --> 00:23:34.474
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.

00:23:34.574 --> 00:23:35.796
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.

00:23:35.896 --> 00:23:37.766
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?

00:23:37.866 --> 00:23:38.783
그거 아니에요.

00:23:38.883 --> 00:23:39.974
능동문에 목적어 없어도 돼요?

00:23:40.074 --> 00:23:40.954
그거 아니에요.

00:23:41.054 --> 00:23:42.812
피동문에 목적어가 없어야만 하나요?

00:23:42.912 --> 00:23:43.994
그거 아니에요.

00:23:44.094 --> 00:23:47.919
중요한 건 다른 거 오해하지
마시고 그냥 사동문 자체에서

00:23:48.019 --> 00:23:50.986
목적어가 없으면 그건
사동문이 아니에요.

00:23:51.086 --> 00:23:52.141
이해되시죠?

00:23:52.241 --> 00:23:53.602
주동문, 능동문.

00:23:53.702 --> 00:23:55.058
목적어 있을 수도 있고,
없을 수도 있어요.

00:23:55.158 --> 00:24:00.982
또 피동문도 목적어 없는 경우가
많지만, 있을 때가 있어요, 짜증나게.

00:24:01.082 --> 00:24:04.925
그러나 사동문의 경우에는
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요.

00:24:05.025 --> 00:24:06.957
반드시 필요해요, 반드시 필요해.

00:24:07.057 --> 00:24:09.095
그래서 없으면 걔는
사동문은 아니에요.

00:24:09.195 --> 00:24:13.878
그래서 우리는 좀 챙겨보셔야 되는
게 사동주가 늘어났다는 것과

00:24:13.978 --> 00:24:17.015
그다음에 목적어가 없었을
때는 만들어지고,

00:24:17.115 --> 00:24:19.263
원래 있었던 건 유지될
수도 있는 것이고요.

00:24:19.363 --> 00:24:21.754
그래서 목적어가
만들어진다는 겁니다.

00:24:21.854 --> 00:24:25.380
그러면 이제 사동의
재료도 보도록 할게요.

00:24:25.480 --> 00:24:27.158
먼저 파생적 사동.

00:24:27.258 --> 00:24:28.937
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00:24:29.037 --> 00:24:33.034
첫 번째는 아까 피동 만들어주는
게 이, 히, 리, 기였죠.

00:24:33.134 --> 00:24:34.563
조금 더 많아요.

00:24:34.663 --> 00:24:36.494
일단 이, 히, 리,
기 같이 가져갑니다.

00:24:36.594 --> 00:24:37.600
이, 히, 리, 기예요.

00:24:37.700 --> 00:24:40.247
그런데 얘는 피동이 아닌
사동이라고 했어요.

00:24:40.347 --> 00:24:42.246
시키는 겁니다.

00:24:42.346 --> 00:24:44.140
문장들을 보도록 할게요.

00:24:44.240 --> 00:24:48.940
얼음 덩어리를 입에 물고
천천히 녹였다라고 했습니다.

00:24:49.040 --> 00:24:50.042
녹였다.

00:24:50.142 --> 00:24:51.236
어떻게 더해졌죠?

00:24:51.336 --> 00:24:53.364
녹이다가 지금 더해졌어요.

00:24:53.464 --> 00:24:55.666
녹이다.

00:24:55.766 --> 00:24:57.917
목적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

00:24:58.017 --> 00:24:59.834
뭘 녹인 거예요?

00:24:59.934 --> 00:25:02.243
얼음 덩어리를 녹인
거예요, 그렇죠?

00:25:02.343 --> 00:25:04.621
그러면 녹게 만든 겁니다.

00:25:04.721 --> 00:25:06.340
녹게 만든 거예요.

00:25:06.440 --> 00:25:07.663
그렇게 시킨 겁니다.

00:25:07.763 --> 00:25:09.119
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.

00:25:09.219 --> 00:25:13.315
녹여졌다, 이게 아니라 녹였다.

00:25:13.415 --> 00:25:15.338
의도적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.

00:25:15.438 --> 00:25:16.355
다음요.

00:25:16.455 --> 00:25:18.875
부자가 붙어.

00:25:18.975 --> 00:25:23.879
우리 외동딸 얼마나 귀한데, 붙어.

00:25:23.979 --> 00:25:26.107
붙다에다 뭐가 더해졌죠?

00:25:26.207 --> 00:25:28.664
붙이다가 지금 더해졌죠.

00:25:28.764 --> 00:25:30.792
뭘 붙였죠?

00:25:30.892 --> 00:25:32.382
반드시 필요해요, 목적어.

00:25:32.482 --> 00:25:35.963
다음, 머리를 감았으면 바람에
잘 말려라라고 했어요.

00:25:36.063 --> 00:25:37.998
얘는 원형이 뭡니까?

00:25:38.098 --> 00:25:40.044
마르다 원형, 마르다 원형.

00:25:40.144 --> 00:25:41.788
마르다 원형이에요.

00:25:41.888 --> 00:25:43.995

더하기, 뭐가 더해졌어요?

00:25:44.095 --> 00:25:45.543
이가 더해졌어요.

00:25:45.643 --> 00:25:47.531
그리고 다가 들어가요.

00:25:47.631 --> 00:25:49.288
그럼 이건 용언 불규칙과 연결되죠.

00:25:49.388 --> 00:25:50.926
르불규칙 용언.

00:25:51.026 --> 00:25:53.127
그래서 마르다의 경우에 아가 붙어.

00:25:53.227 --> 00:25:56.294
그러면 마르아가 아니라 말라 이렇게
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.

00:25:56.394 --> 00:25:58.814
으 탈락 이후에 어간에
ㄹ 덧들어가는.

00:25:58.914 --> 00:26:01.743
그래서 말리다가 만들어지는 거죠.

00:26:01.843 --> 00:26:04.145
말리 뒤에 어라 이렇게 붙은 거죠.

00:26:04.245 --> 00:26:08.961
이거는 뒤에 어라 이렇게
해서 명령형 어미까지 붙은.

00:26:09.061 --> 00:26:10.463
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

00:26:10.563 --> 00:26:13.551
이때 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
역시 이것도 마찬가지.

00:26:13.651 --> 00:26:14.765
뭐를 말리는 거야?

00:26:14.865 --> 00:26:16.782
머리를 말리는 거죠, 그렇죠?

00:26:16.882 --> 00:26:18.603
마르게 하는 겁니다.

00:26:18.703 --> 00:26:19.538
그렇게 하는 거예요.

00:26:19.638 --> 00:26:22.140
지금 ~하게 하다라는
표현이 가장 어울려요.

00:26:22.240 --> 00:26:23.262
그다음에 밑에.

00:26:23.362 --> 00:26:25.396
강아지가 점점 크니 개집을
넓혀야겠다고 했어요.

00:26:25.496 --> 00:26:26.963
어떻게 들어갔어요?

00:26:27.063 --> 00:26:28.622
넓다에다 어떻게?

00:26:28.722 --> 00:26:32.745
히가 지금 들어갔죠.

00:26:32.845 --> 00:26:34.822
뭐를 넓혀요?

00:26:34.922 --> 00:26:36.605
나왔죠, 개집 넓혀요.

00:26:36.705 --> 00:26:40.045
그다음에 여기에는 맞다에다
뭐가 더해졌어요?

00:26:40.145 --> 00:26:41.304
맞히었다.

00:26:41.404 --> 00:26:43.150
히 더해졌어요.

00:26:43.250 --> 00:26:45.989
목적어 어디 있어?

00:26:46.089 --> 00:26:47.771
이런 걸 잘 찾아야죠.

00:26:47.871 --> 00:26:49.325
목적어 어디 있어요?

00:26:49.425 --> 00:26:50.952
얘죠, 얘.

00:26:51.052 --> 00:26:52.112
그렇죠?

00:26:52.212 --> 00:26:53.450
세 문제만이 목적어죠.

00:26:53.550 --> 00:26:54.827
이 만은 보조사잖아.

00:26:54.927 --> 00:26:58.070
그런데 보조사는 우리가
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.

00:26:58.170 --> 00:27:00.086
이때 격조차 뭐 대체했겠어요?

00:27:00.186 --> 00:27:04.070
세 문제를이라고 하는
격조사가 와야 될 자리를

00:27:04.170 --> 00:27:07.717
지금 만이 대체했을 뿐이지 문장
성분은 여전히 목적어 맞죠?

00:27:07.817 --> 00:27:09.341
맞게 만든 거예요.

00:27:09.441 --> 00:27:13.670
어이구, 그 아까운
재능을 그냥 썩히다니.

00:27:13.770 --> 00:27:17.097
썩히다.

00:27:17.197 --> 00:27:18.896
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?

00:27:18.996 --> 00:27:21.027
그래서 여기에도
재능을이라는 목적어.

00:27:21.127 --> 00:27:22.343
선생님, 썩이다 아니에요?

00:27:22.443 --> 00:27:24.802
썩이다는 속을 썩이다,
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.

00:27:24.902 --> 00:27:28.363
그래서 우리 감정 상태와 관련됐을
때는 썩이다 쓰는 거고,

00:27:28.463 --> 00:27:31.772
그다음에 그거 외에 부패나
아니면 없어지게 만들고 하는

00:27:31.872 --> 00:27:33.380
그런 요소면 히를 쓰면 됩니다.

00:27:33.480 --> 00:27:35.957
이렇게 이를 쓰는 거 3개,
히를 쓰는 거 3개.

00:27:36.057 --> 00:27:37.610
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봤고요.

00:27:37.710 --> 00:27:39.227
리, 기도 좀 보도록 합시다.

00:27:39.327 --> 00:27:41.237
캡틴은, 캡틴 아메리카.

00:27:41.337 --> 00:27:44.603
자신의 방패를 적에게 날렸다.

00:27:44.703 --> 00:27:47.641
어떻게 됩니까?

00:27:47.741 --> 00:27:49.463
날다죠.

00:27:49.563 --> 00:27:52.450
방패가 스스로 날 수 없는
거고, 쫙 날게 만든 거야.

00:27:52.550 --> 00:27:53.652
그럼 어떻게 된 거죠?

00:27:53.752 --> 00:27:55.207
날리었다.

00:27:55.307 --> 00:27:56.756
리가 더해진 거죠.

00:27:56.856 --> 00:27:58.024
날리다.

00:27:58.124 --> 00:27:59.258
다음 이것도요.

00:27:59.358 --> 00:28:05.475
헤비급에 출전하기 위해
몸무게를 늘게 만든 거죠.

00:28:05.575 --> 00:28:10.080
그래서 이것도 역시 늘리다.

00:28:10.180 --> 00:28:11.546
늘게 만든 거죠.

00:28:11.646 --> 00:28:12.519
늘리었다.

00:28:12.619 --> 00:28:15.727
다음, 반장은 우리에게 수학여행이
취소되었음을, 목적어 나왔죠.

00:28:15.827 --> 00:28:18.141
알게 만들었어요.

00:28:18.241 --> 00:28:20.411
그래서 알리다.

00:28:20.511 --> 00:28:22.061
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좀 봤고요.

00:28:22.161 --> 00:28:23.467
이번에 기 들어가는 거 봅시다.

00:28:23.567 --> 00:28:26.282
배가 너무 불러서 치킨,
이거는 예의가 아니야.

00:28:26.382 --> 00:28:28.257
아무리 배가 불러도
치킨을 어떻게 남겨?

00:28:28.357 --> 00:28:30.080
치킨을 반이나 남겼다.

00:28:30.180 --> 00:28:31.968
남게 한 거예요.

00:28:32.068 --> 00:28:34.402
그러면 남기다.

00:28:34.502 --> 00:28:36.189
남다에 기가 붙었죠.

00:28:36.289 --> 00:28:39.570
그다음에 그는 신부의
저고리를 조심스레 벗겼다.

00:28:39.670 --> 00:28:42.478
그래서 벗다에다 어떻게 됐어요?

00:28:42.578 --> 00:28:43.582
기다.

00:28:43.682 --> 00:28:45.737
벗게 만든 거죠.

00:28:45.837 --> 00:28:48.423
다음, 분명히 아내가
나한테 감기를 옮겼다.

00:28:48.523 --> 00:28:50.096
목적어 감기를 이런 거 나와 있죠?

00:28:50.196 --> 00:28:53.503
그래서 옮게 만든 거니까 옮기다.

00:28:53.603 --> 00:28:55.103
됐습니까?

00:28:55.203 --> 00:28:56.599
이런 거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죠?

00:28:56.699 --> 00:28:58.759
일단 이, 히, 리, 기가
들어갔다는 건 알겠고.

00:28:58.859 --> 00:29:01.650
그리고 그놈들이 목적어들을
다 가지고 가는

00:29:01.750 --> 00:29:04.926
그러한 접미사구나라는
걸 확인했고요.

00:29:05.026 --> 00:29:08.317
그리고 ~하게 하다,
그렇게 만들다, 시키다

00:29:08.417 --> 00:29:10.096
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.

00:29:10.196 --> 00:29:13.297
그래서 사동 접미사 이, 히,
리, 기까지 확인했습니다.

00:29:13.397 --> 00:29:16.059
그런데 피동 접미사랑

형태가 동일해.

00:29:16.159 --> 00:29:19.753
구분이 되어야 되는데, 이
구분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고

00:29:19.853 --> 00:29:21.832
추가적인 거 더 보도록 하자고요.

00:29:21.932 --> 00:29:23.312
사동 접미사는 더 있어.

00:29:23.412 --> 00:29:24.740
우, 구, 추.

00:29:24.840 --> 00:29:27.135
우랑 구랑 추가 들어갑니다.

00:29:27.235 --> 00:29:28.205
볼게요.

00:29:28.305 --> 00:29:32.161
향기로운 봄나물이 입맛을
돋우었다, 이렇게 됐습니다.

00:29:32.261 --> 00:29:33.753
얘는 어떻게 결합 구조가 됐다?

00:29:33.853 --> 00:29:36.473
돋다에다 우가 더해졌어요.

00:29:36.573 --> 00:29:39.405
여러분, 이거 잘못
쓰이는 경우가 있어요.

00:29:39.505 --> 00:29:41.242
돋구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,

00:29:41.342 --> 00:29:45.924
돋구다의 경우에는 안경 도수를
높일 때 쓸 수 있어요.

00:29:46.024 --> 00:29:47.904
그래서 그것도 사동은 맞아요.

00:29:48.004 --> 00:29:50.054
그래서 안경 도수를 돋구다,
이렇게 쓸 수 있고.

00:29:50.154 --> 00:29:52.755
그 외에 기세를, 입맛을, 분위기를

00:29:52.855 --> 00:29:55.433
이런 건 전부 다
돋우다를 쓰게 됩니다.

00:29:55.533 --> 00:29:58.624
그래서 돋다에다 사동
접미사 우를 썼어요.

00:29:58.724 --> 00:30:02.907

다음, 5만 명의 팬들이
콘서트장을 어떻게 했습니까?

00:30:03.007 --> 00:30:07.761
메다가, 여러분 이거 하나
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

00:30:07.861 --> 00:30:13.340
보면 하수구가 메이다.

00:30:15.956 --> 00:30:20.046
목이 메이다.

00:30:20.146 --> 00:30:22.606
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다 틀려요.

00:30:22.706 --> 00:30:24.508
이거 표준어상 안 맞습니다.

00:30:24.608 --> 00:30:27.824
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
메다 이렇게 써야 돼요.

00:30:27.924 --> 00:30:31.784
이 단어 자체가 이미 좀
피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요.

00:30:31.884 --> 00:30:35.541
그래서 하수구가 그렇게 막히는
걸 메다라고 쓰고요.

00:30:35.641 --> 00:30:38.040
목이 막히는 걸
메다라고 쓰는 거예요.

00:30:38.140 --> 00:30:40.850
그런데 이미 그렇게 막히는
건데 당하는 건데

00:30:40.950 --> 00:30:43.692
거기에 이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?

00:30:43.792 --> 00:30:46.332
이거 피동 접미사로 내가
생각하고 넣어주는 거거든.

00:30:46.432 --> 00:30:47.970
그런데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

00:30:48.070 --> 00:30:49.190
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

00:30:49.290 --> 00:30:51.394
그래서 이건 오히려
잘못된 어휘가 돼요.

00:30:51.494 --> 00:30:53.244
그래서 하수구가 메이다 안 되고요.

00:30:53.344 --> 00:30:56.585
하수구가 메다, 목이 메다

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.

00:30:56.685 --> 00:31:01.199
어쨌든 이 메다라고 하는 어휘에다,
어근에다 뭘 넣어줬다?

00:31:01.299 --> 00:31:02.633
우다를 넣어줘요.

00:31:02.733 --> 00:31:03.880
그러면 사동 접미사.

00:31:03.980 --> 00:31:05.472
그렇게 메게 만드는 겁니다.

00:31:05.572 --> 00:31:08.473
그래서 콘서트장을 가득
메게 만들었어요.

00:31:08.573 --> 00:31:10.458
그래서 메우다.

00:31:10.558 --> 00:31:11.605
사동 접미사.

00:31:11.705 --> 00:31:16.074
다음, 고구마를 구워 먹기 위해
화로를 달다, 달게 만들다,

00:31:16.174 --> 00:31:21.467
달구다가 붙었죠, 구.

00:31:21.567 --> 00:31:23.731
솟다, 올라가는 거예요.

00:31:23.831 --> 00:31:25.330
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야.

00:31:25.430 --> 00:31:26.495
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요.

00:31:26.595 --> 00:31:30.956
그래서 어깨를 솟구다.

00:31:31.056 --> 00:31:32.251
이해되시죠?

00:31:32.351 --> 00:31:35.440
그다음, 모두 공부하고
있으니 목소리 좀 낮춰라.

00:31:35.540 --> 00:31:38.019
낮다, 낮다는 이런 것들을
한번 잘 보세요.

00:31:38.119 --> 00:31:41.978
돋다 같은 경우나 메다나 또
달다나 솟다나 이런 건 동사야.

00:31:42.078 --> 00:31:44.304
품사 자체가 동사야.

00:31:44.404 --> 00:31:48.023
그래서 얘네가 우, 구
더해져서 얘네도 동사야.

00:31:48.123 --> 00:31:49.299
그런데 잘 보세요.

00:31:49.399 --> 00:31:51.628
낮다의 경우에는 여러분, 형용사죠.

00:31:51.728 --> 00:31:53.594
높다, 낮다 이거는 형용사거든요.

00:31:53.694 --> 00:31:56.534
그런데 형용사일 때는
명령 못 쓰잖아요.

00:31:56.634 --> 00:31:58.328
낮아라, 이렇게 할 수
없잖아요, 그렇죠?

00:31:58.428 --> 00:32:00.466
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가 불가능해.

00:32:00.566 --> 00:32:02.055
그런데 잘 보세요.

00:32:02.155 --> 00:32:03.497
여기 지금 뭐가 더해졌죠?

00:32:03.597 --> 00:32:07.174
낮추가 더해졌죠, 그렇죠?

00:32:07.274 --> 00:32:08.517
낮추다.

00:32:08.617 --> 00:32:12.424
그러면 낮추다인데 여기
목소리를, 목적어 나왔죠.

00:32:12.524 --> 00:32:14.050
낮게 만드는 겁니다.

00:32:14.150 --> 00:32:15.273
낮게 만드는 거예요.

00:32:15.373 --> 00:32:18.292
그러면 이때 낮다는 형용사였는데.

00:32:18.392 --> 00:32:19.856
낮추다가 동사가 되죠.

00:32:19.956 --> 00:32:22.262
그래서 이제 뭐가 쓰일 수
있어요, 여기 지금?

00:32:22.362 --> 00:32:24.325
명령의 어미가 가능해지는 거죠.

00:32:24.425 --> 00:32:28.026

낮아라 이렇게는 못 쓰지만
낮춰라는 쓸 수 있었던 거야.

00:32:28.126 --> 00:32:29.839
왜? 동사니까 이제, 낮추다는.

00:32:29.939 --> 00:32:32.926
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
접미사가 붙었을 때

00:32:33.026 --> 00:32:35.483
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도 있었죠.

00:32:35.583 --> 00:32:38.422
이런 걸 우리가 지배적 접사라고
배웠던 거 기억나시죠?

00:32:38.522 --> 00:32:40.281
그다음 늦추고 싶다.

00:32:40.381 --> 00:32:46.281
여기에 늦다에다 추다, 역시나.

00:32:46.381 --> 00:32:47.720
늦게 만들다.

00:32:47.820 --> 00:32:49.948
시험 날짜를, 목적어가 다 나왔죠.

00:32:50.048 --> 00:32:51.304
고민할 게 없어요.

00:32:51.404 --> 00:32:53.634
이, 히, 리, 기의 경우에는
구분을 좀 해야겠지만

00:32:53.734 --> 00:32:55.506
우, 구, 추는 피동 없습니다.

00:32:55.606 --> 00:32:56.654
무조건 사동이에요.

00:32:56.754 --> 00:33:00.000
그래서 나오자마자 사동이구나라는
걸 알 수 있어요.

00:33:00.100 --> 00:33:04.686
그리고 추가적인 또
사동 접미사가 있는데.

00:33:04.786 --> 00:33:11.057
이 사동 접미사는 3개는 아주
예외적인 사동 접미사라고

00:33:11.157 --> 00:33:13.061
봐주셔야 돼요, 얘네는.

00:33:13.161 --> 00:33:16.830
왜냐하면 지금 예를 최소 2개,
3개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

00:33:16.930 --> 00:33:17.903
더 많아요.

00:33:18.003 --> 00:33:20.616
사실은 접미사 붙여서 사동이나
피동 만들 수 있는 거

00:33:20.716 --> 00:33:21.657
되게 많습니다.

00:33:21.757 --> 00:33:25.188
그런데 으키, 이키, 애의
경우에는 너무 없어요.

00:33:25.288 --> 00:33:26.494
너무 없어.

00:33:26.594 --> 00:33:27.658
딱 하나씩밖에 없어요.

00:33:27.758 --> 00:33:30.644
그래서 얘네는 그냥 사실
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

00:33:30.744 --> 00:33:32.423
그냥 외워, 그렇죠?

00:33:32.523 --> 00:33:33.451
같이 합시다.

00:33:33.551 --> 00:33:35.940
그래서 이, 히, 리, 기,
우, 구, 추까지 외워주세요.

00:33:36.040 --> 00:33:38.624
이, 히, 리, 기, 우, 구, 추,
그다음에 이우, 으키, 이키, 애.

00:33:38.724 --> 00:33:40.043
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.

00:33:40.143 --> 00:33:41.589
그래서 일단 먼저
이우부터 보도록 할게요.

00:33:41.689 --> 00:33:44.431
이우의 경우에는 아까
사동 접미사인 이랑

00:33:44.531 --> 00:33:48.769
그다음에 사동 접미사 우랑 이
두 가지를 찢어서 보는 해석도 있지만

00:33:48.869 --> 00:33:53.334
일단 국어 사전 자체에 이우라고
하는 접미사도 인정해줍니다.

00:33:53.434 --> 00:33:55.440
그래서 하나짜리
접미사로 보는 건데.

00:33:55.540 --> 00:33:57.309
여기 지금 접미사가 들어갔어요.

00:33:57.409 --> 00:34:00.696
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
자는 게 주동이라고 한다면

00:34:00.796 --> 00:34:02.270
그렇게 만들었어요.

00:34:02.370 --> 00:34:03.773
자장자장 해서 만들었어요.

00:34:03.873 --> 00:34:07.216
그러면 아이들을 자다에다
뭐가 더해진 거죠?

00:34:07.316 --> 00:34:10.365
이우가 더해져.

00:34:10.465 --> 00:34:11.986
이해되시죠?

00:34:12.086 --> 00:34:15.516
그러면 이때 자이가
합쳐져서 어떻게 되겠어요?

00:34:15.616 --> 00:34:17.304
재가 만들어지는 거죠.

00:34:17.404 --> 00:34:19.072
이렇게 만들어진 사동이야.

00:34:19.172 --> 00:34:20.473
이것도 마찬가지예요.

00:34:20.573 --> 00:34:22.715
수정과에 잣을 띄워요.

00:34:22.815 --> 00:34:23.814
목적어 나왔죠.

00:34:23.914 --> 00:34:24.871
잣을 띄워요.

00:34:24.971 --> 00:34:26.496
그러면 얘는 원래 원형은 뜨다죠.

00:34:26.596 --> 00:34:27.610
잣이 뜨다.

00:34:27.710 --> 00:34:29.549
그런데 여기다 뭘 더해준 거야?

00:34:29.649 --> 00:34:31.128
뜨게 만들었어.

00:34:31.228 --> 00:34:32.499
이우를 더해줘.

00:34:32.599 --> 00:34:34.316

그리고 다가 돼.

00:34:34.416 --> 00:34:38.288
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
뜨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?

00:34:38.388 --> 00:34:39.849
띄가 되는 거죠.

00:34:39.949 --> 00:34:42.241
그래서 띄우다가 만들어지는 거야.

00:34:42.341 --> 00:34:45.730
세우다 같은 거, 서다, 그렇죠?

00:34:45.830 --> 00:34:50.934
서다에다 역시나 이우+다 하면
이거 합쳐져서 어떻게 돼?

00:34:51.034 --> 00:34:51.796
세우다.

00:34:51.896 --> 00:34:53.169
그러니까 내가 딱
서다, 나를 세우다.

00:34:53.269 --> 00:34:54.201
이렇게 되는 거죠?

00:34:54.301 --> 00:34:55.251
그래서 이런 놈들이 이우.

00:34:55.351 --> 00:34:55.940
이우는 좀 많아요.

00:34:56.040 --> 00:34:57.382
그런데 여기 봅시다.

00:34:57.482 --> 00:35:00.837
김 장관의 발표는 심각한
논란을, 목적어 나오죠.

00:35:00.937 --> 00:35:03.945
그다음에 발길을 돌이켜,
발길을 목적어 나오죠.

00:35:04.045 --> 00:35:06.097
TV를 없애고, 목적어
일단 나와요.

00:35:06.197 --> 00:35:08.383
사동사의 기본 조건을
갖추고 있는데

00:35:08.483 --> 00:35:10.720
얘네가 지금 일게 만드는 거잖아요.

00:35:10.820 --> 00:35:13.125
여러분, 일다가 뭡니까?

00:35:13.225 --> 00:35:17.239

분위기가 일다, 아래에서
위로 올라오고 뭔가 발생하고

00:35:17.339 --> 00:35:18.746
이런 걸 얘기하거든요.

00:35:18.846 --> 00:35:20.458
발생하게 된 거야.

00:35:20.558 --> 00:35:25.671
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더해진
거냐면 일으키었다, 일으키다.

00:35:25.771 --> 00:35:29.662
그래서 으키라고 하는 사동
접미사는 딱 일다 뒤에만 붙어요.

00:35:29.762 --> 00:35:30.661
다른 거 없어요.

00:35:30.761 --> 00:35:31.793
다음, 여기도 마찬가지.

00:35:31.893 --> 00:35:34.271
내가 스스로 돌 수 있어요.

00:35:34.371 --> 00:35:37.454
내가 돌 수 있는데 누가 나를
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거죠.

00:35:37.554 --> 00:35:39.347
돌게 만든 겁니다.

00:35:39.447 --> 00:35:41.505
그래서 돌에다 이키를 더해줘.

00:35:41.605 --> 00:35:43.361
돌에다 어떻게?

00:35:43.461 --> 00:35:45.037
이키.

00:35:45.137 --> 00:35:46.243
돌이키다.

00:35:46.343 --> 00:35:48.476
이게 사동을 만들어주는
접미사로 보는 거고요.

00:35:48.576 --> 00:35:50.688
또 그다음에 없게 만드는 거야.

00:35:50.788 --> 00:35:52.077
없게 만드는 거예요.

00:35:52.177 --> 00:35:55.373
없다 역시 형용사죠.

00:35:55.473 --> 00:35:58.235
형용사인데 없애다는 또
동사가 되는 구조죠.

00:35:58.335 --> 00:36:00.329
그래서 없다, 그렇게
만드는 거예요.

00:36:00.429 --> 00:36:03.399
없애다, 사동.

00:36:03.499 --> 00:36:05.001
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

00:36:05.101 --> 00:36:08.803
이, 히, 리, 기, 우, 구,
추, 이우, 으키, 이키, 애.

00:36:08.903 --> 00:36:12.710
으키, 이키, 애는 일다, 돌다,
없다 뒤에만 붙는 특수한 경우고요.

00:36:12.810 --> 00:36:14.865
나머지는 좀 보편적으로
많이 붙어요.

00:36:14.965 --> 00:36:17.287
이렇게 해서 첫 번째, 많다.

00:36:17.387 --> 00:36:20.152
사동 접미사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.

00:36:20.252 --> 00:36:23.157
그다음에, 그런데 어쨌든
유형은 똑같습니다.

00:36:23.257 --> 00:36:29.435
어간, 용언의 어간 뒤에 곧바로
접미사를 붙이는 구조라고 보는 거죠.

00:36:29.535 --> 00:36:32.028
아까 파생적 피동의
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?

00:36:32.128 --> 00:36:34.612
어근에 되다를 붙이는 경우였죠.

00:36:34.712 --> 00:36:36.577
그와 대응할 수 있는 두 번째.

00:36:36.677 --> 00:36:39.581
파생적 사동은 어근에다
시키다를 붙입니다.

00:36:39.681 --> 00:36:40.627
똑같아요.

00:36:40.727 --> 00:36:43.862
어근에 하다를 붙일 수 있는
단어들이 있어요, 그렇죠?

00:36:43.962 --> 00:36:46.299
그런데 그런 수많은 단어들
중 일부가 어근에다

00:36:46.399 --> 00:36:48.366
시키다를 또 붙일 수
있습니다, 상황상.

00:36:48.466 --> 00:36:49.666
볼게요.

00:36:49.766 --> 00:36:52.467
발표하다, 이해하다,
진정하다, 집합하다,

00:36:52.567 --> 00:36:54.816
합격하다라는 단어가
있는 거예요, 그렇죠?

00:36:54.916 --> 00:36:56.890
그런데 여기 단어에서
이런 것들 어떻게?

00:36:56.990 --> 00:36:58.735
시키다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.

00:36:58.835 --> 00:37:02.623
그래서 교수는 지각한 학생에게
과제를 발표하게 만든 거야.

00:37:02.723 --> 00:37:05.183
발표하게 한 거예요, 발표시켰다.

00:37:05.283 --> 00:37:06.650
시키다 지금 더해졌잖아요.

00:37:06.750 --> 00:37:09.709
또, 다른 사람을 쉽게
이해시키는, 이해하는,

00:37:09.809 --> 00:37:12.195
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
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.

00:37:12.295 --> 00:37:13.889
그래서 이해시키는 것도 능력이다.

00:37:13.989 --> 00:37:16.753
다음, 달아오른 피부를
진정하게 만든 거예요.

00:37:16.853 --> 00:37:18.787
진정시키는 화장품을 샀다.

00:37:18.887 --> 00:37:22.132
중대장은 부대원들을
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.

00:37:22.232 --> 00:37:25.451
집합하게 한 거죠,
집합하게 한 겁니다.

00:37:25.551 --> 00:37:29.049
다음, 사장은 그 청년을

면접에서 합격시켰다.

00:37:29.149 --> 00:37:31.323
합격하게 만들어줬어요, 그렇죠?

00:37:31.423 --> 00:37:34.383
이렇게 어근+시키다의
구조가 더해져 있는 것들

00:37:34.483 --> 00:37:38.167
전부 다 이렇게
파생어가 되는 거고요.

00:37:38.267 --> 00:37:41.241
그래서 전부 다 얘네는
한단어가 되는 거예요.

00:37:41.341 --> 00:37:43.823
물론 사전에 안 나와요, 이거.

00:37:43.923 --> 00:37:45.321
이거 안 나와요.

00:37:45.421 --> 00:37:47.118
합격시키다, 집합시키다,
진정시키다 안 나와.

00:37:47.218 --> 00:37:49.089
왜 안 나오냐면 이건
어쩔 수 없어요.

00:37:49.189 --> 00:37:53.899
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
어근+하다는 일단 정말 병적으로

00:37:53.999 --> 00:37:55.609
사전에 다 등재해줘요.

00:37:55.709 --> 00:38:00.412
그런데 이 어근+하다 구조에서
하다 말고 되다나 시키다나

00:38:00.512 --> 00:38:04.852
다른 또 여러 접미사들이 붙는
것들이 파생성이 다양하기 때문에

00:38:04.952 --> 00:38:08.162
이것까지 사전에 넣어주면
너무 사전 양이 늘어나니까

00:38:08.262 --> 00:38:11.791
일단 시키다가 접미사라는 것만
인정시켜주고, 인정하게 하고

00:38:11.891 --> 00:38:15.546
그리고 경우에 따라 붙이면
돼요라고 알려주는 거죠.

00:38:15.646 --> 00:38:18.218
그래서 사전에 나오지는
않아요, 이런 단어들은.

00:38:18.318 --> 00:38:20.101
그러나 못 쓰는 게
아니라는 겁니다.

00:38:20.201 --> 00:38:23.036
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동문을
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

00:38:23.136 --> 00:38:24.653
역시나 목적어 필요하죠.

00:38:24.753 --> 00:38:26.093
과제를 발표.

00:38:26.193 --> 00:38:27.940
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.

00:38:28.040 --> 00:38:29.441
피부를 진정시키는 거.

00:38:29.541 --> 00:38:31.239
부대원들을 집합시키는 거.

00:38:31.339 --> 00:38:33.224
청년을 합격시키는 겁니다.

00:38:33.324 --> 00:38:35.317
반드시 목적어는 필요해요,
사동문에서는.

00:38:35.417 --> 00:38:39.597
통사적 사동의 방법은 통사적
피동이 두 가지가 있었죠.

00:38:39.697 --> 00:38:41.845
~하게 되다와 아지다, 어지다.

00:38:41.945 --> 00:38:45.700
그런데 통사적 사동은
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

00:38:45.800 --> 00:38:49.120
~하게 되다에 또 대응되는
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38:49.220 --> 00:38:52.300
~하게 하다입니다, ~하게 하다.

00:38:52.400 --> 00:38:54.248
이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되죠.

00:38:54.348 --> 00:38:57.738
그래서 그는 언제나
나를 웃게 한다.

00:38:57.838 --> 00:38:59.775
그는 언제나 나를 웃게 한다.

00:38:59.875 --> 00:39:01.422
웃도록 만드는 거죠.

00:39:01.522 --> 00:39:02.340
다음요.

00:39:02.440 --> 00:39:04.166
선생님은 나에게 큰
꿈을 꾸게 했다.

00:39:04.266 --> 00:39:05.590
꾸도록 만든 겁니다.

00:39:05.690 --> 00:39:09.940
다음, 이 회사는 쉬고 싶을 때 쉬게
해서, 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.

00:39:10.040 --> 00:39:11.592
그래서 그게 좋아요.

00:39:11.692 --> 00:39:14.845
다음, 주인은 우리에게,
여기 목적어 뭐예요?

00:39:14.945 --> 00:39:16.348
이 문장에서는.

00:39:16.448 --> 00:39:18.716
얘는 지금 나를 웃게 하는
거, 꿈을 꾸게 하는 건데,

00:39:18.816 --> 00:39:20.133
누구를 쉬게 하는 거죠?

00:39:20.233 --> 00:39:21.484
생략되어 있는 거죠.

00:39:21.584 --> 00:39:22.788
나를이죠, 여기에서는, 그렇죠?

00:39:22.888 --> 00:39:25.425
다음, 주인은 우리에게 가장
좋은 방을 쓰게 했다.

00:39:25.525 --> 00:39:26.840
방을 쓰게 하다.

00:39:26.940 --> 00:39:28.305
쓰도록 만들어줬죠.

00:39:28.405 --> 00:39:30.985
진행자는 나에게 앞에서
노래를 부르게 했다.

00:39:31.085 --> 00:39:32.432
부르도록 만들었어요.

00:39:32.532 --> 00:39:35.045
게 하다, 이런 식으로
게 하다가 붙는 구조는

00:39:35.145 --> 00:39:37.091
단어가 형성된 건 아니었어요.

00:39:37.191 --> 00:39:39.023
왜냐하면 보조 용언들이기 때문에.

00:39:39.123 --> 00:39:41.076
그래서 통사적 구조가 길어집니다.

00:39:41.176 --> 00:39:44.446
그래서 사동 표현의 재료까지도
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.

00:39:44.546 --> 00:39:48.196
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
고민했던 건 바로,

00:39:48.296 --> 00:39:51.727
그거보다 이거 먼저
해야겠네요, 그렇죠?

00:39:51.827 --> 00:39:53.069
사동 표현의 중의성.

00:39:53.169 --> 00:39:56.204
그래서 지금 보면 사동
표현의 방법이 이렇게

00:39:56.304 --> 00:40:00.138
파생적 사동하는 게 있었고,
통사적 사동하는 게 있었잖아요.

00:40:00.238 --> 00:40:03.623
그런데 지금 이 파생적
사동하고 통사적 사동이

00:40:03.723 --> 00:40:05.318
같이 쓰일 수 있죠, 이렇게.

00:40:05.418 --> 00:40:07.863
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.

00:40:07.963 --> 00:40:10.302
어머니께서 동생에게
옷을 입게 했다.

00:40:10.402 --> 00:40:11.628
위에는 뭘 썼죠?

00:40:11.728 --> 00:40:13.107
입히를 썼어요, 히.

00:40:13.207 --> 00:40:14.558
접미사 이용했고.

00:40:14.658 --> 00:40:17.773
다음 여기는 게 하다라고 하는
보조 용언을 이용했습니다.

00:40:17.873 --> 00:40:20.450
그래서 위에는 입히다라는
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

00:40:20.550 --> 00:40:24.851
파생적 사동이고, 또 밑에는 문장의
길이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

00:40:24.951 --> 00:40:26.731
통사적 사동이라고 보는 건데.

00:40:26.831 --> 00:40:30.029
여러분이 문장이 뜻이 좀 달라요.

00:40:30.129 --> 00:40:33.763
다르다라고 할 게 아니라
포함 관계를 좀 가져요.

00:40:33.863 --> 00:40:35.225
볼게요.

00:40:35.325 --> 00:40:39.914
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
입혔다라고 하는 것이

00:40:40.014 --> 00:40:42.175
직접 사동일까요, 간접 사동일까요?

00:40:42.275 --> 00:40:43.554
이게 무슨 소리냐.

00:40:43.654 --> 00:40:49.373
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
사동주가 행위를 직접 한 것이냐.

00:40:49.473 --> 00:40:53.308
아니면 간접 사동이라고
하는 것은 말로.

00:40:53.408 --> 00:40:59.169
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고
하는 것은 어머니가 팔 들어.

00:40:59.269 --> 00:41:01.505
아이가 되게 어릴 수
있잖아요, 동생이.

00:41:01.605 --> 00:41:04.979
팔 들어 봐 하고 머리에서부터
딱 끼워서 이렇게 한 거냐

00:41:05.079 --> 00:41:10.615
아니면 말로 옷 좀
입어라라고 해서 한 거냐.

00:41:10.715 --> 00:41:13.300
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.

00:41:13.400 --> 00:41:16.160
그래서 이 파생적 사동은
중의문이 형성돼요.

00:41:16.260 --> 00:41:19.647
경우에 따라서 이렇게
직접 사동성도 있고,

00:41:19.747 --> 00:41:22.441
간접 사동성도 띠게
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41:22.541 --> 00:41:25.506
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.

00:41:25.606 --> 00:41:29.124
어머니께서 동생에게
입어라, 옷을 입혔다.

00:41:29.224 --> 00:41:33.178
그러나 이렇게 통사적 사동일
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로

00:41:33.278 --> 00:41:34.998
모호하게 떨어지지 않아요.

00:41:35.098 --> 00:41:36.669
정확하게 하나의 의미만 나옵니다.

00:41:36.769 --> 00:41:39.394
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.

00:41:39.494 --> 00:41:41.205
직접 입힌 건 절대 아니죠.

00:41:41.305 --> 00:41:42.768
그냥 말로 한 거겠죠?

00:41:42.868 --> 00:41:45.361
그래서 간접 사동의
기능만 갖게 됩니다.

00:41:45.461 --> 00:41:48.463
따라서 이 문장은 비문이냐?

00:41:48.563 --> 00:41:50.728
그건 아니에요, 여러분
오해하시면 안 돼요.

00:41:50.828 --> 00:41:54.073
중의문이라고 하는 것은
비문과는 상관없어요.

00:41:54.173 --> 00:41:56.654
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은
아니라는 겁니다.

00:41:56.754 --> 00:41:59.716
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쓸 수
있는 문장인데 모호할 뿐이죠.

00:41:59.816 --> 00:42:01.607
그래서 비문은 아니고요.

00:42:01.707 --> 00:42:04.846
단, 이런 중의적인 해석을
좀 해소하기 위해서

00:42:04.946 --> 00:42:07.566
이 문장의 경우에는
중의적인 문장이니까

00:42:07.666 --> 00:42:10.059
좀 해소하기 위해서
이렇게 바꿔주든지

00:42:10.159 --> 00:42:13.781
아니면 직접 사동을 만들어주기
위해서는 좀 강력하게

00:42:13.881 --> 00:42:15.829
어휘를 더 추가해주면
좋을 것 같아요.

00:42:15.929 --> 00:42:20.187
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
직접 입혔다와 같이

00:42:20.287 --> 00:42:23.826
직접과 같은 어휘를 넣어주면
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

00:42:23.926 --> 00:42:25.895
직접 사동이구나라는 걸
알 수 있는 거죠.

00:42:25.995 --> 00:42:28.859
만약에 간접 사동의 뜻으로
문장을 쓰고 싶었다 그러면

00:42:28.959 --> 00:42:33.453
이렇게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주는
방법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.

00:42:33.553 --> 00:42:36.494
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거 같아요.

00:42:36.594 --> 00:42:40.936
이, 히, 리, 기 아까 전에 피동사도
있었고, 피동을 만들어 줄 수 있는

00:42:41.036 --> 00:42:43.534
피동 접미사도 있었고 또
사동을 만들어 줄 수 있는

00:42:43.634 --> 00:42:45.336
사동 접미사도 있었어.

00:42:45.436 --> 00:42:49.395
그러면 그 이, 히, 리,
기가 끼어 있는 동사들을

00:42:49.495 --> 00:42:51.915
사동사로 볼 거냐
피동사로 볼 거냐.

00:42:52.015 --> 00:42:53.875
어떻게 빨리 구분할 수
있는 방법은 없을까.

00:42:53.975 --> 00:42:55.500
그런 문제가 나오니까.

00:42:55.600 --> 00:42:58.720
첫 번째 방법은 목적어
유무인 것 같아요.

00:42:58.820 --> 00:43:01.646
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
필요하냐, 그러면 사동이다.

00:43:01.746 --> 00:43:03.627
그렇지 않으면 피동이다.

00:43:03.727 --> 00:43:04.804
이제 구분해 봅시다.

00:43:04.904 --> 00:43:07.503
첫 번째 문장, 동생
자꾸 울리면 못써.

00:43:07.603 --> 00:43:10.111
울다에 리가 지금
들어갔어, 그렇죠?

00:43:10.211 --> 00:43:11.835
그러면 울리다.

00:43:11.935 --> 00:43:14.354
이 문장에 목적어
필요해요, 안 필요해요?

00:43:14.454 --> 00:43:15.420
필요하죠.

00:43:15.520 --> 00:43:16.567
동생을 울리는 거죠.

00:43:16.667 --> 00:43:19.188
동생을 울리는 거죠,
그럼 얘는 사동사야.

00:43:19.288 --> 00:43:22.696
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때나
사동은 아니지만,

00:43:22.796 --> 00:43:25.506
이 경우에는 사동사구나라는 걸
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

00:43:25.606 --> 00:43:28.826
다음 문장, 잡곡이 좀
섞인 밥이 몸에 좋다.

00:43:28.926 --> 00:43:30.043
뭐가 섞였다?

00:43:30.143 --> 00:43:31.107
잡곡이 섞이다.

00:43:31.207 --> 00:43:33.394
무엇을 섞이다가 아니라
잡곡이 섞이다.

00:43:33.494 --> 00:43:35.343
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 아니야.

00:43:35.443 --> 00:43:36.921
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?

00:43:37.021 --> 00:43:39.532
섞이다는 피동사가 된다는 거죠.

00:43:39.632 --> 00:43:44.530
섞다에다 이 접미사가 붙었는데 이,
히, 리, 기는 사동, 피동 겹치잖아.

00:43:44.630 --> 00:43:47.588
그런데 얘는 문장에
목적어가 필수적이지 않아.

00:43:47.688 --> 00:43:49.113
그러니까 얘는 피동이야.

00:43:49.213 --> 00:43:51.691
다음 문장.

00:43:51.791 --> 00:43:54.706
파다, 파이다.

00:43:54.806 --> 00:43:57.707
사동이에요, 피동이에요?

00:43:57.807 --> 00:43:59.836
옷을 파이다가 아니잖아요.

00:43:59.936 --> 00:44:01.069
옷이 파인 거죠.

00:44:01.169 --> 00:44:02.708
그러니까 파였다.

00:44:02.808 --> 00:44:05.961
나는 아내가 목이 너무 파인 옷을.

00:44:06.061 --> 00:44:07.646
그럼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.

00:44:07.746 --> 00:44:09.144
그럼 뭐가 되는 거죠?

00:44:09.244 --> 00:44:10.958
피동사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.

00:44:11.058 --> 00:44:13.835
다음 문장, 아이는 사슴을
잔뜩 쌓인 장작 뒤에 숨겼다.

00:44:13.935 --> 00:44:16.534
숨다, 숨기다.

00:44:16.634 --> 00:44:18.532
기가 들어갔어요.

00:44:18.632 --> 00:44:20.623
뭘 숨겨요?

00:44:20.723 --> 00:44:21.719
숨겼어.

00:44:21.819 --> 00:44:23.229
뭘 숨겼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.

00:44:23.329 --> 00:44:24.981
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반드시
필요했었던 거야, 그렇죠?

00:44:25.081 --> 00:44:27.004
그래서 얘는 사동사.

00:44:27.104 --> 00:44:30.121
그런데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.

00:44:30.221 --> 00:44:32.841
고기를 다 먹지 않을
거면 얼려서 보관해라.

00:44:32.941 --> 00:44:35.151
얼다, 리다가 들어갔어요.

00:44:35.251 --> 00:44:36.365
얼다, 리다.

00:44:36.465 --> 00:44:39.220
그러면 리는 이, 히, 리, 기
겹치니까 사동인지 피동인지 고민이 돼.

00:44:39.320 --> 00:44:40.892
목적어가 필요한가.

00:44:40.992 --> 00:44:42.308
뭘 얼려?

00:44:42.408 --> 00:44:43.843
목적어 없네.

00:44:43.943 --> 00:44:46.403
피동인가 보다 하면 망한다는 거죠.

00:44:46.503 --> 00:44:51.829
왜? 지금 이게 연결되는 이어진
문장인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44:51.929 --> 00:44:55.326
고기를 다 먹지 않을 거면
얼려서, 뭘 얼리는 거죠?

00:44:55.426 --> 00:45:00.218
고기를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
고기를 얼리는 것도 있는 거죠.

00:45:00.318 --> 00:45:02.095

동일한 목적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.

00:45:02.195 --> 00:45:05.563
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
있거나 아니면 문맥상

00:45:05.663 --> 00:45:09.938
이미 앞에 대화 상황에서 알 수
있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거든.

00:45:10.038 --> 00:45:13.410
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
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.

00:45:13.510 --> 00:45:17.234
이 얼리다라는 건 반드시 무엇을
얼리다, 무엇을이 필요하죠.

00:45:17.334 --> 00:45:19.275
그럼 얘는 사동사.

00:45:19.375 --> 00:45:21.921
바로 앞에 목적어 없으니까
피동 이러면 안 돼요.

00:45:22.021 --> 00:45:23.936
다음 것.

00:45:24.036 --> 00:45:26.956
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.

00:45:27.056 --> 00:45:29.780
심지어는 학자에 의하면,
일부 학자에 의하면

00:45:29.880 --> 00:45:31.960
얘는 피동 아니야, 이렇게
얘기하기도 해요.

00:45:32.060 --> 00:45:34.337
그런데 의미는 피동이
분명하거든요, 사실은.

00:45:34.437 --> 00:45:36.839
멱살을 잡힌 것이 너무 화가 나.

00:45:36.939 --> 00:45:40.907
지금 잡히다, 잡다에 히가
들어갔어요, 잡히다.

00:45:41.007 --> 00:45:42.212
멱살을 잡히다.

00:45:42.312 --> 00:45:44.097
멱살을 잡혔다, 멱살을 잡히다.

00:45:44.197 --> 00:45:45.121
목적어 나왔죠.

00:45:45.221 --> 00:45:46.248
사동이냐?

00:45:46.348 --> 00:45:47.323
피동이에요.

00:45:47.423 --> 00:45:49.223
제가 말씀드렸죠.

00:45:49.323 --> 00:45:50.366
잘 보세요.

00:45:50.466 --> 00:45:53.324
사동사는 목적어 없으면 안 돼.

00:45:53.424 --> 00:45:55.470
사동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필요해요.

00:45:55.570 --> 00:45:58.592
그런데 피동사는 목적어
없는 경우가 많아요.

00:45:58.692 --> 00:46:00.112
많아요, 더 많아요.

00:46:00.212 --> 00:46:03.836
그런데 목적어가 일부 피동사들이
목적어를 요구해요.

00:46:03.936 --> 00:46:05.762
반드시는 아니야.

00:46:05.862 --> 00:46:06.652
무슨 얘기냐?

00:46:06.752 --> 00:46:10.826
이때 잡히다는 도둑이 경찰에게
잡히다 해도 되잖아요, 문장이.

00:46:10.926 --> 00:46:12.982
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
건 아니에요.

00:46:13.082 --> 00:46:14.693
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.

00:46:14.793 --> 00:46:17.737
그런데 도둑이 경찰에게
여기저기 잡힐 수 있죠.

00:46:17.837 --> 00:46:21.467
팔을 잡혔든 멱살을 잡혔든 뒷덜미를
잡히든 잡힐 수 있거든요.

00:46:21.567 --> 00:46:23.336
그때 목적어를 넣어줄
수도 있는 거지

00:46:23.436 --> 00:46:26.471
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
건 아니라는 겁니다.

00:46:26.571 --> 00:46:28.105

그 차이가 있어요.

00:46:28.205 --> 00:46:34.578
그래서 잡히다, 뺏기다,
밟히다 이런 단어들.

00:46:34.678 --> 00:46:37.527
뺏기다, 돈을 뺏기다.

00:46:37.627 --> 00:46:40.698
그런데 그것도 가만히
보면 당하는 거예요.

00:46:40.798 --> 00:46:41.805
뒤에 있는 거 보세요.

00:46:41.905 --> 00:46:44.846
그래서 일단 내가 목적어의
유무 가지고 판단하는 게

00:46:44.946 --> 00:46:48.034
제일 일차적으로 편한데, 그거
가지고 좀 불확실한 것 같아.

00:46:48.134 --> 00:46:50.637
그럼 여러분, 방법 없죠.

00:46:50.737 --> 00:46:52.009
두 번째 방법이 필요해요.

00:46:52.109 --> 00:46:53.964
이런 것들도 고민이
될 수밖에 없어요.

00:46:54.064 --> 00:46:58.930
무슨 얘기냐면 안기다가,
보이다가 형태가 동일한데

00:46:59.030 --> 00:47:01.772
문장 내에서 사동으로
쓰였을 때가 있고,

00:47:01.872 --> 00:47:03.116
피동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.

00:47:03.216 --> 00:47:04.525
무슨 얘기냐.

00:47:04.625 --> 00:47:07.752
여러분, 먹다를 시키려고 해요.

00:47:07.852 --> 00:47:10.006
그러면 이제 사동
접미사가 필요합니다.

00:47:10.106 --> 00:47:11.558
그럼 뭐 붙이면 되는 거죠?

00:47:11.658 --> 00:47:14.650
먹이다가 붙으면 되죠, 그렇죠?

00:47:14.750 --> 00:47:16.235
먹이를 먹이다.

00:47:16.335 --> 00:47:18.137
다음, 당했어요.

00:47:18.237 --> 00:47:20.844
내가 사자에게 먹히다.

00:47:20.944 --> 00:47:22.049
그래요.

00:47:22.149 --> 00:47:23.986
그래서 형태가 달라, 지금 이때.

00:47:24.086 --> 00:47:26.577
이, 히, 리, 기 중에서
어떨 때는 사동 접미사일 때는

00:47:26.677 --> 00:47:29.159
이를 지금 쓴 거고, 피동
접미사일 때는 히를 쓴 거니까

00:47:29.259 --> 00:47:31.861
아예 사동사와 피동사의
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죠.

00:47:31.961 --> 00:47:33.192
이게 많아요.

00:47:33.292 --> 00:47:39.506
그러나 안기다의 경우나
여기에 보이다의 경우에는

00:47:39.606 --> 00:47:45.617
이 기나 이가 여기에서 쓰였을
때 동일한 피동 접미사

00:47:45.717 --> 00:47:47.027
공유를 한단 말이에요.

00:47:47.127 --> 00:47:49.420
그럼 문장을 통해 판단하셔야 돼요.

00:47:49.520 --> 00:47:50.705
위에 거.

00:47:50.805 --> 00:47:52.738
내 동생은 아직도 엄마에게 안기다.

00:47:52.838 --> 00:47:57.001
엄마에게 안겨 잔다, 안겨 잔다.

00:47:57.101 --> 00:48:00.603
안게 만드는 겁니까,
이렇게 되는 겁니까?

00:48:00.703 --> 00:48:01.755
되는 거죠.

00:48:01.855 --> 00:48:03.654

목적어가 없어요, 이 문장.

00:48:03.754 --> 00:48:04.738
피동사.

00:48:04.838 --> 00:48:06.108
그런데 밑에 있는 거.

00:48:06.208 --> 00:48:07.758
안게 만든 거야.

00:48:07.858 --> 00:48:11.771
그가 죽으면서 큰 빚을
안게 만든 거예요.

00:48:11.871 --> 00:48:13.586
시킨 거야.

00:48:13.686 --> 00:48:14.765
사동사.

00:48:14.865 --> 00:48:16.242
즉, 목적어가 지금 나왔잖아요.

00:48:16.342 --> 00:48:17.853
이거 가지고 금방
구별할 수 있잖아요.

00:48:17.953 --> 00:48:19.038
다음, 애도 마찬가지.

00:48:19.138 --> 00:48:19.985
바다가 보여.

00:48:20.085 --> 00:48:21.108
바다가 보이다.

00:48:21.208 --> 00:48:22.972
피동이에요, 목적어 필요 없어요.

00:48:23.072 --> 00:48:25.814
그런데 밑에 있는 건 내
졸업사진을, 그렇죠?

00:48:25.914 --> 00:48:28.291
졸업사진을 보이다,
보게 만들었잖아요.

00:48:28.391 --> 00:48:29.647
목적어 나오잖아요.

00:48:29.747 --> 00:48:31.347
이런 거 가지고 빨리
판단할 수 있죠.

00:48:31.447 --> 00:48:33.918
그래서 이 목적어의
유무 가지고 판단할 때

00:48:34.018 --> 00:48:36.605
사동사랑 피동사의

형태가 동일하잖아요.

00:48:36.705 --> 00:48:37.594
되게 쉬워요, 이러면.

00:48:37.694 --> 00:48:40.292
목적어 있는 거 가지고 사동,
없는 거 가지고 피동 구분하기

00:48:40.392 --> 00:48:41.502
되게 편하단 말이죠.

00:48:41.602 --> 00:48:42.649
그래서 이럴 때 쓰면 좋고.

00:48:42.749 --> 00:48:46.098
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
써서 답지가 좀 남았어.

00:48:46.198 --> 00:48:48.268
왠지 두 개가 남아 있는 상태야.

00:48:48.368 --> 00:48:52.294
그러면 다음 방법을
쓰는 게 좋다는 거죠.

00:48:52.394 --> 00:48:56.643
그런데 그 다음 방법이
원칙은 그래요.

00:48:56.743 --> 00:49:00.256
피동은 아까 전에 파생적
피동이 통사적 피동하고

00:49:00.356 --> 00:49:02.586
치환되는데, 그 통사적
피동이 ~하게 되다,

00:49:02.686 --> 00:49:06.505
그다음에 통사적 사동은
~하게 하다거든요.

00:49:06.605 --> 00:49:08.590
맞아요, 맞는데.

00:49:08.690 --> 00:49:13.753
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바꿔서
뭔가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면

00:49:13.853 --> 00:49:16.311
방법이 있어요.

00:49:16.411 --> 00:49:21.893
그러니까 ~하게 되다 같은
경우에는 ~하게 되어지다.

00:49:21.993 --> 00:49:23.563
물론 이렇게 쓰면 안 돼요.

00:49:23.663 --> 00:49:25.467
느낌만 보자는 거죠.

00:49:25.567 --> 00:49:27.767
되어지다 하면 좀 더
강력한 느낌이 나는데.

00:49:27.867 --> 00:49:33.808
이 ~게 하다도 ~하게 만들다.

00:49:33.908 --> 00:49:36.348
이렇게 해서 바꿔서 어울리잖아요?

00:49:36.448 --> 00:49:37.973
그러면 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

00:49:38.073 --> 00:49:40.964
물론 ~하게 만들다는
쓰지 않는 게 좋아요.

00:49:41.064 --> 00:49:45.854
왜? make 구문, 우리 이제
영어 번역투 느낌이 난단 말이죠.

00:49:45.954 --> 00:49:48.050
그래서 이거를 우리가
지양하려고 하거든요.

00:49:48.150 --> 00:49:51.124
그래서 먹게 만들었다
이러면 너 영문하냐?

00:49:51.224 --> 00:49:53.089
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

00:49:53.189 --> 00:49:58.707
그래서 make 구문 쪽에
이제 이런 영문 번역투,

00:49:58.807 --> 00:50:01.516
이런 문장을 우리가 별로
쓰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

00:50:01.616 --> 00:50:03.473
그래서 그거를 원칙상 안 잡습니다.

00:50:03.573 --> 00:50:05.400
그래서 느낌만 보자는 거죠.

00:50:05.500 --> 00:50:08.100
느낌만 ~하게 만들다,
~하게 만들다.

00:50:08.200 --> 00:50:14.670
얘는 ~하게 되다는 느낌이
당하다, 그렇게 당한 거야.

00:50:14.770 --> 00:50:16.207
~당한 거야.

00:50:16.307 --> 00:50:18.188
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
생각해 보자는 거죠.

00:50:18.288 --> 00:50:22.644
그래서 이렇게 바꿔봐서 어울리는
쪽으로 가자는 겁니다.

00:50:22.744 --> 00:50:26.811
첫 번째, 할머니는 우는
손주에게 사탕을 물렸다.

00:50:26.911 --> 00:50:29.129
목적어가 나오니까 사동이야.

00:50:29.229 --> 00:50:30.764
이러면 망할 수 있어요.

00:50:30.864 --> 00:50:32.349
잘 보세요.

00:50:32.449 --> 00:50:33.529
사탕을.

00:50:33.629 --> 00:50:35.556
이건 사동 맞네요.

00:50:35.656 --> 00:50:39.888
할머니는 우는 손주에게
사탕을 물게 한 거죠.

00:50:39.988 --> 00:50:42.602
물게 한 거죠, 물게 만든 거죠.

00:50:42.702 --> 00:50:43.723
그럼 얘는 뭐예요?

00:50:43.823 --> 00:50:45.017
사동사, 얘 목적어도 나와 있고.

00:50:45.117 --> 00:50:46.306
얘 딱 어울려요.

00:50:46.406 --> 00:50:47.493
밑에 거.

00:50:47.593 --> 00:50:48.915
누나가 옆집 푸들에게
엉덩이를 물렸다.

00:50:49.015 --> 00:50:49.980
꽉.

00:50:50.080 --> 00:50:52.219
그런데 물게 한 거예요, 이게?

00:50:52.319 --> 00:50:55.760
누나가 옆집 푸들에게
물어 봐, 물어 봐 해서

00:50:55.860 --> 00:50:58.199
물렸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
그렇게 했겠습니까?

00:50:58.299 --> 00:51:01.124
이때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.

00:51:01.224 --> 00:51:03.720
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
느낌이 아니란 말이야.

00:51:03.820 --> 00:51:04.982
당한 거예요, 당한 거.

00:51:05.082 --> 00:51:06.125
당한 거라니까요?

00:51:06.225 --> 00:51:08.398
누나가 옆집 푸들에게
엉덩이를 물린 거예요.

00:51:08.498 --> 00:51:11.646
똑같은 물리다인데 얘는
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
00:51:11.746 --> 00:51:13.174
뭐로 가야 된다?

00:51:13.274 --> 00:51:14.454
피동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.

00:51:14.554 --> 00:51:16.711
왜? 이렇게 치환을 해보니까.

00:51:16.811 --> 00:51:18.504
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겁니다.

00:51:18.604 --> 00:51:21.981
다음, 공격수들이 상대
수비에 막혀 무기력했다.

00:51:22.081 --> 00:51:24.265
막히다.

00:51:24.365 --> 00:51:25.654
된 거죠?

00:51:25.754 --> 00:51:27.132
그렇게 당한 겁니다.

00:51:27.232 --> 00:51:28.280
당한 거예요.

00:51:28.380 --> 00:51:29.383
만든 게 아니라.

00:51:29.483 --> 00:51:32.089
나를 막게 만들어 이게
아니라 된 거예요.

00:51:32.189 --> 00:51:33.522
피동문입니다.

00:51:33.622 --> 00:51:35.894
다음, 책상을 벽에 붙이고.

00:51:35.994 --> 00:51:37.613
목적어 나왔죠, 책상을 붙이고.

00:51:37.713 --> 00:51:39.414
그런데 붙게 한 거죠.

00:51:39.514 --> 00:51:40.708
붙게 만든 거죠.

00:51:40.808 --> 00:51:42.040
이렇게 바꿔도 좋다는 얘기예요.

00:51:42.140 --> 00:51:43.092
사동사.

00:51:43.192 --> 00:51:45.643
다음, 어머니는 짐을
지느라 아이를 걸렸다.

00:51:45.743 --> 00:51:47.652
여러분, 이런 어휘 모를
수 있다는 거예요.

00:51:47.752 --> 00:51:48.778
잘 보세요.

00:51:48.878 --> 00:51:51.347
아이를 걸렸다, 아이를 걸렸다?

00:51:51.447 --> 00:51:52.799
목에 돌이 걸렸다?

00:51:52.899 --> 00:51:53.634
그거예요?

00:51:53.734 --> 00:51:54.910
아니죠, 문장 보세요.

00:51:55.010 --> 00:51:56.677
어머니랑 아이랑 함께 가는 거야.

00:51:56.777 --> 00:51:58.111
그런데 짐을 지고 있어요.

00:51:58.211 --> 00:52:01.557
그래서 아이를 평상시에는
안아줘야 될 텐데 못 안아주고

00:52:01.657 --> 00:52:03.471
손을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.

00:52:03.571 --> 00:52:06.636
그래서 걷게 한 거라고요.

00:52:06.736 --> 00:52:08.045
걷게 한 거죠.

00:52:08.145 --> 00:52:09.848
걷게 만든 거예요.

00:52:09.948 --> 00:52:15.615
그래서 이때 걸리다가 걷다의 사동
접미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

00:52:15.715 --> 00:52:16.906
이해되세요?

00:52:17.006 --> 00:52:20.576
그런데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
이거는 사동사가 되는 거고.

00:52:20.676 --> 00:52:24.262
다음, 집에 오다가 중학생들에게
돈을 뺏겼다, 이거예요.

00:52:24.362 --> 00:52:28.081
그러니까 뺏다에 기가
지금 들어가 있는데.

00:52:28.181 --> 00:52:30.516
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사동사냐?

00:52:30.616 --> 00:52:31.755
그건 아니라는 거죠.

00:52:31.855 --> 00:52:33.148
뺏게 만든 거예요.

00:52:33.248 --> 00:52:37.461
중학생들에게 내 돈을 빼앗아라 이게
아니라 당한 거죠, 당한 거예요.

00:52:37.561 --> 00:52:39.224
된 거야, 그렇게.

00:52:39.324 --> 00:52:44.577
그래서 이럴 때는 치환을 통해서
정확성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.

00:52:44.677 --> 00:52:48.799
그래서 이렇게 사동사나
피동사가 나왔을 때는

00:52:48.899 --> 00:52:53.065
두 가지 방법들을 좀 동원하셔서
풀어야만 하겠고요.

00:52:53.165 --> 00:52:56.003
이제 주의해야 될 표현을
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52:56.103 --> 00:52:59.350
사동문하고 피동문에서 문제화 될
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.

00:52:59.450 --> 00:53:00.992
이런 거는 고쳐쓰기,

00:53:01.092 --> 00:53:05.259
작문에서도 답지 하나로 들어가는
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

00:53:05.359 --> 00:53:07.075
일단 첫 번째, 이중 피동입니다.

00:53:07.175 --> 00:53:08.303
이중 피동 뭐냐?

00:53:08.403 --> 00:53:10.329
피동의 재료를 네 가지를 배웠어요.

00:53:10.429 --> 00:53:13.283
그런데 그 피동의 재료
네 가지를 두 개 이상 섞어 쓰면

00:53:13.383 --> 00:53:14.963
그러면 이중 피동이야.

00:53:15.063 --> 00:53:16.280
한번 정리해 볼까요?

00:53:16.380 --> 00:53:17.712
이중 피동의 재료.

00:53:17.812 --> 00:53:21.608
피동의 재료, 이, 히,
리, 기, 그렇죠?

00:53:21.708 --> 00:53:26.723
그다음에 어근에다 곧바로 더하기
되다 붙이는 경우, 그렇죠?

00:53:26.823 --> 00:53:32.820
그다음에 통사적 ~하게 되다,
그다음에 ~아, ~어지다.

00:53:32.920 --> 00:53:34.636
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
있었단 말이에요.

00:53:34.736 --> 00:53:36.124
섞어 쓰면 끝나는 거야.

00:53:36.224 --> 00:53:37.718
이중 피동이야, 쓰면 안 돼요.

00:53:37.818 --> 00:53:40.672
깃발이 찢겨진 채로 세워져
있었다라고 했어요.

00:53:40.772 --> 00:53:42.322
저거 한번 분리해 봅시다.

00:53:42.422 --> 00:53:47.340
찢다에다 기다에다
어지 함께 씁니다.

00:53:47.440 --> 00:53:50.413
그다음에 관형사형
ㄴ을 쓴 거잖아.

00:53:50.513 --> 00:53:51.800

이해되세요?

00:53:51.900 --> 00:53:55.951
그러니까 깃발이 찢기다,
어지다, ㄴ인데.

00:53:56.051 --> 00:53:59.356
여기에 지금 재료가 여기에
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,

00:53:59.456 --> 00:54:02.506
그다음에 어지다 재료가 여기
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

00:54:02.606 --> 00:54:05.343
그러면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
쓰면 안 된다는 거야, 이건.

00:54:05.443 --> 00:54:06.470
잘못된 표현이다.

00:54:06.570 --> 00:54:10.421
물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
이거 꼭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

00:54:10.521 --> 00:54:13.010
피동의 강조의 느낌으로
보면 어떨까.

00:54:13.110 --> 00:54:14.657
그냥 비문 아닌 거로.

00:54:14.757 --> 00:54:16.466
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
일단 비문이에요.

00:54:16.566 --> 00:54:17.761
비문이에요, 알겠죠?

00:54:17.861 --> 00:54:21.133
그래서 찢겨진 하면 잘못된 거고.

00:54:21.233 --> 00:54:23.124
그러면 어떻게 돼요?

00:54:23.224 --> 00:54:24.742
둘 중 하나만 쓰라는 얘기입니다.

00:54:24.842 --> 00:54:25.967
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

00:54:26.067 --> 00:54:27.915
깃발이 찢긴 상태로.

00:54:28.015 --> 00:54:29.082
찢긴 채로.

00:54:29.182 --> 00:54:30.064
하나만 쓰는 거야.

00:54:30.164 --> 00:54:31.532

아니면 찢어진 채로.

00:54:31.632 --> 00:54:32.618
이해되시죠?

00:54:32.718 --> 00:54:33.513
하나만 쓰라고요.

00:54:33.613 --> 00:54:37.170
찢긴 채로, 찢어진
채로 이런 식으로.

00:54:37.270 --> 00:54:40.680
다음, 우리 많이 쓴단
말이에요, 잘못된 표현.

00:54:40.780 --> 00:54:43.921
다음, 주머니 속에 집혀진
것은 아버지의 편지였다.

00:54:44.021 --> 00:54:46.997
집혀진 것은 한번 봅시다.

00:54:47.097 --> 00:54:51.453
집히+어가 들어가야 혀가 나오죠.

00:54:51.553 --> 00:54:54.065
어지+ㄴ 이렇게 들어간 거야.

00:54:54.165 --> 00:54:58.592
그럼 역시 히라고 하는 재료,
피동 재료와 어지다 피동 재료가

00:54:58.692 --> 00:55:01.587
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역시나
이중 피동이었던 것이고,

00:55:01.687 --> 00:55:06.904
그다음에 바꿔주면 주머니
속에 집힌 것은.

00:55:07.004 --> 00:55:08.029
이게 맞죠.

00:55:08.129 --> 00:55:09.293
집어진 이건 이상하죠.

00:55:09.393 --> 00:55:11.368
그래서 두 가지가 다
되는 건 아니에요.

00:55:11.468 --> 00:55:13.733
그래서 집힌 것 이렇게
쓰면 되겠고.

00:55:13.833 --> 00:55:17.232
또 그다음에 제주 4.3 사건은 잊혀진
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.

00:55:17.332 --> 00:55:20.122
잊혀진 역사.

00:55:20.222 --> 00:55:24.020
잊, 히, 어지, ㄴ.

00:55:24.120 --> 00:55:26.180
사실 얼마나 많이 씁니까?

00:55:26.280 --> 00:55:27.532
그런데 잘못된 표현이에요.

00:55:27.632 --> 00:55:29.172
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?

00:55:29.272 --> 00:55:33.450
잊힌 역사, 또는 잊어진 역사
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.

00:55:33.550 --> 00:55:35.386
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.

00:55:35.486 --> 00:55:37.608
믿겨지지 않아.

00:55:37.708 --> 00:55:40.020
믿겨지지 않아요.

00:55:40.120 --> 00:55:41.145
정말이야?

00:55:41.245 --> 00:55:42.293
믿겨지지 않아.

00:55:42.393 --> 00:55:44.067
이것도 구분해 보세요.

00:55:44.167 --> 00:55:47.025
믿다, 믿기다.

00:55:47.125 --> 00:55:51.611
어지, 연결어미 지 이렇게
들어간 거잖아요, 그렇죠?

00:55:51.711 --> 00:55:55.769
이것도 역시 재료가 기랑 어지랑
두 번 썼어요, 안 돼요.

00:55:55.869 --> 00:55:57.125
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?

00:55:57.225 --> 00:56:00.672
정말 믿기지 않아 또는 믿어지지
않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.

00:56:00.772 --> 00:56:03.665
둘 중에 하나만.

00:56:03.765 --> 00:56:05.239
볼까요?

00:56:05.339 --> 00:56:07.822
이모는 방탄소년단에

중독되게 되었다.

00:56:07.922 --> 00:56:09.666
이게 재료 잘 보세요.

00:56:09.766 --> 00:56:11.444
중독되다.

00:56:11.544 --> 00:56:14.374
중독이라고 하는 어근에
되다가 붙었어요.

00:56:14.474 --> 00:56:15.906
이거 지금 재료 하나 들어와 있죠.

00:56:16.006 --> 00:56:18.709
그런데 또 ~게 되다가
또 들어갔어.

00:56:18.809 --> 00:56:19.733
이해되시죠?

00:56:19.833 --> 00:56:21.066
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

00:56:21.166 --> 00:56:22.283
중독되었다.

00:56:22.383 --> 00:56:23.392
게 되 없애.

00:56:23.492 --> 00:56:24.914
그래서 중독 되었다.

00:56:25.014 --> 00:56:28.408
다음, 나는 사장님 앞에만 가면
작아지게 된다라고 했는데.

00:56:28.508 --> 00:56:32.126
아지다 계열, 아지다 계열
지금 들어갔죠, 아지다.

00:56:32.226 --> 00:56:34.272
그런데 ~게 되다가 또 들어갔어.

00:56:34.372 --> 00:56:35.946
안 돼, 이중 피동이야.

00:56:36.046 --> 00:56:38.303
그러니까 작아진다.

00:56:38.403 --> 00:56:41.602
작게 된다, 작게 된다보다는
작아지다가 좀 어울리네요, 그렇죠?

00:56:41.702 --> 00:56:43.460
일단 두 개가 쓰였다.

00:56:43.560 --> 00:56:44.393
잘못된 거다 이거죠.

00:56:44.493 --> 00:56:46.932
그래서 방식들은 이게
더 많이 나올 텐데.

00:56:47.032 --> 00:56:48.124
이것도 잘못된 거예요.

00:56:48.224 --> 00:56:50.542
이 네 가지 재료를
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

00:56:50.642 --> 00:56:53.764
두 가지가 섞여 들어갔을 때
이중 피동임을 확인할 수 있죠.

00:56:53.864 --> 00:56:56.018
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, 여러분.

00:56:56.118 --> 00:56:57.882
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.

00:56:57.982 --> 00:57:00.719
코난에 의해 범인이 밝혀졌다.

00:57:00.819 --> 00:57:04.627
잘못 썼어요?

00:57:04.727 --> 00:57:06.818
밝혀졌다 이렇게 되죠.

00:57:06.918 --> 00:57:10.354
밝, 히, 어지, 그다음에 과거
선어말 어미 었, 그다음에 다.

00:57:10.454 --> 00:57:14.107
이렇게 결합됐을 때 혀졌다 이렇게
된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네.

00:57:14.207 --> 00:57:16.880
잘못됐으니까 쓰면 안 되겠네.

00:57:16.980 --> 00:57:21.469
그냥 밝혔다, 밝아졌다, 이상한데?

00:57:21.569 --> 00:57:23.556
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.

00:57:23.656 --> 00:57:25.608
잘 보세요.

00:57:25.708 --> 00:57:29.159
여기 지금 기나 히나
히의 경우에, 그렇죠?

00:57:29.259 --> 00:57:32.320
이놈들, 피동 접미사잖아요,
피동 접미사.

00:57:32.420 --> 00:57:36.002
그런데 이놈이, 이놈들이
피동만 있었나?

00:57:36.102 --> 00:57:37.616
사동도 있었지.

00:57:37.716 --> 00:57:39.366
사동 접미사도 있었죠.

00:57:39.466 --> 00:57:43.027
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는 여러분
뭘 챙겨 보셔야 되냐면요.

00:57:43.127 --> 00:57:47.438
얘가 지금 사동인지
피동인지 판단하셔야 돼요.

00:57:47.538 --> 00:57:49.111
찢기다예요.

00:57:49.211 --> 00:57:51.628
무엇을 찢기다예요,
무엇이 찢기다예요?

00:57:51.728 --> 00:57:53.471
무엇이 찢기다죠.

00:57:53.571 --> 00:57:54.965
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.

00:57:55.065 --> 00:57:56.161
피동이에요.

00:57:56.261 --> 00:57:57.225
그래서 이중 피동이에요.

00:57:57.325 --> 00:57:58.821
다음, 집히다.

00:57:58.921 --> 00:58:01.144
무엇을 집히다예요,
무엇이 집히다예요?

00:58:01.244 --> 00:58:02.530
무엇이 집히다죠.

00:58:02.630 --> 00:58:03.650
목적어 필요 없어요.

00:58:03.750 --> 00:58:04.752
피동이에요.

00:58:04.852 --> 00:58:08.554
무엇이 잊히다, 무엇을 잊히다가
아니라 무엇이 잊히다죠.

00:58:08.654 --> 00:58:09.803
역시나 피동이에요.

00:58:09.903 --> 00:58:11.230
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.

00:58:11.330 --> 00:58:14.694

무엇이 밝히다가 아니라
무엇을 밝히다.

00:58:14.794 --> 00:58:16.870
비밀을 밝히다, 범인을 밝히다.

00:58:16.970 --> 00:58:24.291
얘는 이때의 히가 사동
접미사이므로 피동성을 만들어주는

00:58:24.391 --> 00:58:28.406
어지다 한 번만 쓴 거기 때문에
얘는 이중 피동이 아니고,

00:58:28.506 --> 00:58:30.321
따라서 잘 썼다.

00:58:30.421 --> 00:58:32.934
얘네는 잘못된 거지만
얘는 잘 썼다.

00:58:33.034 --> 00:58:34.613
알겠습니까?

00:58:34.713 --> 00:58:37.620
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
구조 나왔다고 해서

00:58:37.720 --> 00:58:39.064
이거 이중 피동이야.

00:58:39.164 --> 00:58:40.140
큰일나요.

00:58:40.240 --> 00:58:41.183
낚일 수 있어요.

00:58:41.283 --> 00:58:44.664
그래서 중간에 껴 있는 접미사를
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.

00:58:44.764 --> 00:58:50.218
또 예를 들면 알려졌다.

00:58:50.318 --> 00:58:57.246
이런 것도 보면 알다+리+어지+었,
그다음에 다 이렇게 구조 나왔죠.

00:58:57.346 --> 00:58:59.868
리 접미사, 어지
접미사, 다 피동이야.

00:58:59.968 --> 00:59:01.495
이중 피동 안 된다는 거죠.

00:59:01.595 --> 00:59:04.258
왜? 알리다, 무엇을 알리다.

00:59:04.358 --> 00:59:07.536
무엇이 알리다가 아니라
무엇을 알리다.

00:59:07.636 --> 00:59:09.037
목적어 반드시 필요하죠.

00:59:09.137 --> 00:59:10.322
얘는 사동이었어.

00:59:10.422 --> 00:59:15.519
따라서 피동성을 가지고 있는 어지다
한 번만 쓴 이놈은 괜찮아.

00:59:15.619 --> 00:59:16.554
알겠죠?

00:59:16.654 --> 00:59:18.683
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을
좀 잘 하셔야 돼요.

00:59:18.783 --> 00:59:23.657
다음, 피동 쪽에서는 이렇게
이중 피동과 관련된 문제들이

00:59:23.757 --> 00:59:24.872
자주 나오죠.

00:59:24.972 --> 00:59:27.659
사동에서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

00:59:27.759 --> 00:59:29.921
불필요한 사동 표현을
신경 쓰시면 돼요.

00:59:30.021 --> 00:59:33.325
이 불필요한 사동이라고
하는 건 재료 중에서

00:59:33.425 --> 00:59:36.873
어근+시키다 재료 있었죠, 우리?

00:59:36.973 --> 00:59:43.420
사동문 만들 때 어근+시키다의 구조로
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.

00:59:43.520 --> 00:59:48.376
그런데 이 어근+시키다를 언제나
잘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59:48.476 --> 00:59:53.092
만약에 문장 내에 이
어근+시키다의 구조를

00:59:53.192 --> 01:00:04.255
어근+하다로 써봐서, 하다로
써봐서 이게 어울리면,

01:00:04.355 --> 01:00:06.617
이것이 어울리잖아요?

01:00:06.717 --> 01:00:08.227
그러면 얘는 쓰면 안 된다.

01:00:08.327 --> 01:00:10.430
이게 불필요한 사동이라는 거예요.

01:00:10.530 --> 01:00:11.537
이해되십니까?

01:00:11.637 --> 01:00:12.499
다시요.

01:00:12.599 --> 01:00:17.138
어근+시키다의 구조로 되어 있는
단어를 어근+하다로 바꿨을 때

01:00:17.238 --> 01:00:18.579
그게 어울려?

01:00:18.679 --> 01:00:20.559
그러면 얘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.

01:00:20.659 --> 01:00:24.914
이제 이 다섯 문장에서 전부 다
시키다 구조를 만들어드렸거든요.

01:00:25.014 --> 01:00:28.593
필요한 사동과 불필요한 사동을
구분해 보도록 합니다.

01:00:28.693 --> 01:00:33.878
첫 번째 문장, 재민아, 너희
동아리 친구 좀 소개시켜줘.

01:00:33.978 --> 01:00:36.874
소개시키다를 소개하다로 바꿉니다.

01:00:36.974 --> 01:00:39.301
그리고 어울리는 지를
판단해 보시면 돼요.

01:00:39.401 --> 01:00:43.918
재민아, 너희 동아리
친구 좀 소개해줘.

01:00:44.018 --> 01:00:45.611
괜찮네.

01:00:45.711 --> 01:00:48.498
그럼 소개+시키다를
쓸 필요가 없네.

01:00:48.598 --> 01:00:50.630
즉, 얘는 비문이네.

01:00:50.730 --> 01:00:52.769
불필요한 사동이라는
거예요, 이놈이.

01:00:52.869 --> 01:00:54.652
비문, 잘못된 문장.

01:00:54.752 --> 01:00:56.332
문장이 잘못됐어, 이러면.

01:00:56.432 --> 01:00:57.511
다음 문장.

01:00:57.611 --> 01:01:01.051
소대원은 전 대원을
연병장에 집합시켰다.

01:01:01.151 --> 01:01:05.010
소대원은 전 대원을
연병장에 집합했다.

01:01:05.110 --> 01:01:07.053
무슨 소리야?

01:01:07.153 --> 01:01:08.050
아니잖아.

01:01:08.150 --> 01:01:09.229
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

01:01:09.329 --> 01:01:10.913
집합시켰다 필요한 거 아니야?

01:01:11.013 --> 01:01:12.603
필요한 사동, 그래서.

01:01:12.703 --> 01:01:16.701
다음 문장, 감독은 부상당한
선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.

01:01:16.801 --> 01:01:20.264
감독은 부상당한 선수를
명단에서 제외했다.

01:01:20.364 --> 01:01:21.893
말 되죠?

01:01:21.993 --> 01:01:23.415
불필요한 사동.

01:01:23.515 --> 01:01:26.341
다음, 선생님은 싸우는
두 친구를 화해시켰다.

01:01:26.441 --> 01:01:28.287
선생님은 싸우는 두
친구를 화해했다.

01:01:28.387 --> 01:01:29.649
뭐야?

01:01:29.749 --> 01:01:30.763
화해시켜야 되죠.

01:01:30.863 --> 01:01:31.958
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

01:01:32.058 --> 01:01:33.467
그래서 얘는 필요한 사동.

01:01:33.567 --> 01:01:36.258
남편은 전화를 걸어
예약을 취소시켰다.

01:01:36.358 --> 01:01:39.236
남편은 전화를 걸어 예약을
취소했다, 되죠?

01:01:39.336 --> 01:01:41.208
그러니까 얘는 불필요한 사동.

01:01:41.308 --> 01:01:45.775
물론 이렇게 지금
불필요한 사동을 쓴 것도

01:01:45.875 --> 01:01:47.463
필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.

01:01:47.563 --> 01:01:49.131
방법은 이렇습니다.

01:01:53.456 --> 01:01:58.310
이런 걸 넣어준다면 얘는 필요한
사동이 될 수도 있어요.

01:01:58.410 --> 01:01:59.894
왜냐?

01:01:59.994 --> 01:02:04.492
감독은 코치에게 부상당한
선수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.

01:02:04.592 --> 01:02:11.224
코치를 통해, 이런 거
넣어주면 좋겠다.

01:02:11.324 --> 01:02:13.578
코치를 통해, 이런 식으로.

01:02:13.678 --> 01:02:17.107
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면 이게
누가 누구를 제외시킨 건

01:02:17.207 --> 01:02:18.201
어떻게 한 거죠?

01:02:18.301 --> 01:02:22.960
감독이 선수를 제외시킨 게
아니라 감독이 코치를 통해서

01:02:23.060 --> 01:02:25.275
선수를 제외하도록 만들었거든요.

01:02:25.375 --> 01:02:26.778
그때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.

01:02:26.878 --> 01:02:30.196
그런데 지금 이 문장 상태로는
안 되는 게 분명하죠.

01:02:30.296 --> 01:02:34.564

왜? 직접 한 행위를 뭐하러
사동을 쓰느냐 이거죠.

01:02:34.664 --> 01:02:35.628
이해되십니까?

01:02:35.728 --> 01:02:36.894
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.

01:02:36.994 --> 01:02:41.376
남편은 아내를 통해 예약을
취소시켰다,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.

01:02:41.476 --> 01:02:42.556
아내를 통해.

01:02:42.656 --> 01:02:44.687
그러니까 남편은
아내에게 부탁한 거죠.

01:02:44.787 --> 01:02:47.625
그래서 취소하도록 만들었으니까
아내를 통해 취소시켰다.

01:02:47.725 --> 01:02:48.931
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

01:02:49.031 --> 01:02:52.710
그러나 이렇게 문장에 나왔다면
직접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

01:02:52.810 --> 01:02:55.944
불필요한 사동성을 쓰는 건
비문으로 정리된다는 거죠.

01:02:56.044 --> 01:02:59.496
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동과
피동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요.

01:02:59.596 --> 01:03:03.407
이번에 이제 인용 표현
부분 보도록 할게요.

01:03:03.507 --> 01:03:05.379
인용 표현입니다.

01:03:05.479 --> 01:03:07.224
인용 표현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.

01:03:07.324 --> 01:03:10.205
그런데 이제 최근에
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,

01:03:10.305 --> 01:03:12.319
또 핫하게 나올 거예요.

01:03:12.419 --> 01:03:15.991
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
이제 대화 형태의 문장에서

01:03:16.091 --> 01:03:19.649

인용문으로 바꾸는 형태로
출제가 되겠죠.

01:03:19.749 --> 01:03:21.040
얘기했어요.

01:03:21.140 --> 01:03:24.807
내일 워터파크 가자라고
얘기했습니다.

01:03:24.907 --> 01:03:26.273
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

01:03:26.373 --> 01:03:28.604
형이 내일 워터파크 가자라고 했다.

01:03:28.704 --> 01:03:31.550
형이 내일 워터파크 가자고 했다.

01:03:31.650 --> 01:03:36.106
위에 있는 문장은 따옴표,
큰따옴표를 그대로 실어주고.

01:03:36.206 --> 01:03:39.416
그다음에 조사예요, 여러분.

01:03:39.516 --> 01:03:40.561
그렇죠?

01:03:40.661 --> 01:03:41.791
이게 무슨 조사입니까?

01:03:41.891 --> 01:03:43.755
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였어요.

01:03:43.855 --> 01:03:46.182
그래서 이 라고를 붙여서
문장을 만들어줘요.

01:03:46.282 --> 01:03:49.252
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말
또는 누군가의 글.

01:03:49.352 --> 01:03:53.512
이것을 따옴표 안에, 큰따옴표
안에 넣어주는 겁니다.

01:03:53.612 --> 01:03:56.377
그대로, 아주 그대로
넣어줘야 돼요, 그렇죠?

01:03:56.477 --> 01:03:58.678
그걸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.

01:03:58.778 --> 01:04:01.275
큰따옴표 안에 인용할 말이나
글을 그대로 포함합니다.

01:04:01.375 --> 01:04:03.937
다음, 형이 내일
워터파크 가자고 했다.

01:04:04.037 --> 01:04:05.513
이거는 풀어 버렸어.

01:04:05.613 --> 01:04:07.135
그래서 따옴표가 안 보여.

01:04:07.235 --> 01:04:08.488
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거죠.

01:04:08.588 --> 01:04:11.885
다른 이의 말이나 글을 요약하고
정리해서 인용하는 방식이에요.

01:04:11.985 --> 01:04:13.397
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.

01:04:13.497 --> 01:04:16.539
직접 인용의 방법들을
몇 개 갖다 놨어요.

01:04:16.639 --> 01:04:19.700
먼저 반장은 그만 집에
가자라고 말했다.

01:04:19.800 --> 01:04:22.212
그러니까 반장이 말한
대사를 그대로 씁니다.

01:04:22.312 --> 01:04:24.527
그만 집에 가자라고
분명 얘기했던 거예요.

01:04:24.627 --> 01:04:27.896
만약에 반장이 그만
집에 갑시다라고 했다면

01:04:27.996 --> 01:04:29.523
이렇게 쓰면 안 되죠.

01:04:29.623 --> 01:04:31.415
대사를 그대로 인용해야 되니까.

01:04:31.515 --> 01:04:34.010
집에 가자라고 얘기했던
걸 그대로 넣어주고

01:04:34.110 --> 01:04:35.068
라고 말했다.

01:04:35.168 --> 01:04:38.926
이때 인용한 문장 안에서의
마침표는 없어도 상관없어요.

01:04:39.026 --> 01:04:40.335
이거는 뭐 상관없어요.

01:04:40.435 --> 01:04:43.048
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
이건 상관없습니다.

01:04:43.148 --> 01:04:47.149
다음,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
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

01:04:47.249 --> 01:04:50.651
바로 참된 지식이다라고 했다.

01:04:50.751 --> 01:04:56.395
이거는 위에 있는 건 대사였다면 얘는
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, 그렇죠?

01:04:56.495 --> 01:04:59.532
그래서 공자가 쓴 그 글에
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해도

01:04:59.632 --> 01:05:01.413
역시나 이렇게 큰따옴표를 써줍니다.

01:05:01.513 --> 01:05:03.875
대문에는 개 조심이라고 써 있었다.

01:05:03.975 --> 01:05:06.356
여러분, 이게 라고나 이라고예요.

01:05:06.456 --> 01:05:10.432
앞에 받침이 없는 상태로
끝났기 때문에 라고를 쓴다면

01:05:10.532 --> 01:05:13.619
받침이 있는 상태로 끝났으면 이렇게
이라고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.

01:05:13.719 --> 01:05:16.818
조사 이다가 아니라 이건
이라고라고 하는 조사입니다.

01:05:16.918 --> 01:05:18.849
그래서 라고, 이라고 같은 거예요.

01:05:18.949 --> 01:05:23.696
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
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.

01:05:23.796 --> 01:05:24.917
괜찮아요.

01:05:25.017 --> 01:05:26.221
이것도 역시 뭡니까?

01:05:26.321 --> 01:05:30.198
대문에 쓰여 있는 문구를
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.

01:05:30.298 --> 01:05:31.924
개 조심이라고 쓰여 있었던 거야.

01:05:32.024 --> 01:05:33.418
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죠.

01:05:33.518 --> 01:05:35.357
이래도 큰따옴표를 써줍니다.

01:05:35.457 --> 01:05:36.576
작은따옴표 안 돼요.

01:05:36.676 --> 01:05:40.348
강조의 기능을 해주는 게 아니라
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

01:05:40.448 --> 01:05:41.969
큰따옴표 필요해요.

01:05:42.069 --> 01:05:46.659
다음, 사람들이 괴물이야
하고 울부짖으며 뛰어나왔다.

01:05:46.759 --> 01:05:48.898
좀 달라요.

01:05:48.998 --> 01:05:52.034
지금 재료를 보시면
첫 번째 재료 세 개,

01:05:52.134 --> 01:05:55.824
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것은 라고나
이라고를 쓰는 방식이었어요.

01:05:55.924 --> 01:05:58.060
이게 바로 조사거든요.

01:05:58.160 --> 01:06:01.899
인용 부사격 조사.

01:06:04.222 --> 01:06:09.385
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고,
하는의 형태를 썼습니다.

01:06:09.485 --> 01:06:10.536
하다의 활용.

01:06:10.636 --> 01:06:12.475
즉, 동사의 활용형을 쓰는 건데.

01:06:12.575 --> 01:06:17.848
그러면 얘는 좀 다른 게 얘는
바로 따옴표 뒤에 붙여 썼고요.

01:06:17.948 --> 01:06:19.194
얘도 지금 붙여 썼어요.

01:06:19.294 --> 01:06:20.507
얘도 지금 붙여 썼어요.

01:06:20.607 --> 01:06:23.095
그런데 얘는 보이시는지
모르겠는데 띄어져 있습니다.

01:06:23.195 --> 01:06:24.671
얘도 지금 띄어져 있어요.

01:06:24.771 --> 01:06:27.850
왜냐하면 조사는 앞

단어랑 붙여 쓰지만

01:06:27.950 --> 01:06:31.838
얘는 용언 하다이기 때문에, 동사
하다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.

01:06:31.938 --> 01:06:33.984
그러니까 이제 띄어질 수밖에
없어요, 앞 단어랑.

01:06:34.084 --> 01:06:37.538
그래서 이게 인용된 부분이
앞 단어라고 보고

01:06:37.638 --> 01:06:39.658
띄어 쓰게 되어
있습니다, 기본적으로.

01:06:39.758 --> 01:06:43.354
그래서 하다의 활용, 하고, 하는
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건데.

01:06:43.454 --> 01:06:48.618
그런데 이렇게 하다의 형태를 주로
쓸 때에는 온전한 문장이 아닐 때

01:06:48.718 --> 01:06:53.302
온전한 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
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,

01:06:53.402 --> 01:06:55.203
이것도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01:06:55.303 --> 01:06:58.022
그래서 사람들이 괴물이야,
누가 괴물이야가 아니잖아요.

01:06:58.122 --> 01:07:00.214
그래서 괴물이야 하고
울부짖으며 뛰어나왔다.

01:07:00.314 --> 01:07:02.449
관중들은 이승엽, 홈런.

01:07:02.549 --> 01:07:06.022
이런 대사를 그대로 넣어주고,
하는 응원가를 연호했다.

01:07:06.122 --> 01:07:07.990
이때는 라고를 쓰는
게 좀 어색하죠.

01:07:08.090 --> 01:07:12.114
그래서 관중들은 이승엽,
홈런이라는 응원가.

01:07:12.214 --> 01:07:15.360
이렇게 써도 되지만, 이때 이렇게
하는 같은 걸 더 써주는 겁니다.

01:07:15.460 --> 01:07:16.617

많이 써주는 거죠.

01:07:16.717 --> 01:07:19.765
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
직접 인용해주는 거고요.

01:07:19.865 --> 01:07:21.391
간접 인용은 이제 풀어줄 텐데.

01:07:21.491 --> 01:07:23.361
잘 보세요.

01:07:23.461 --> 01:07:29.095
뭘 우리가 주목해 볼 거냐면
문장의 형태에 따라서

01:07:29.195 --> 01:07:32.390
여기에 있는 이 안긴 문장의
문장 형태 얘기하는 거야.

01:07:32.490 --> 01:07:35.590
안긴 문장의 문장 형태에 따라서
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

01:07:35.690 --> 01:07:36.442
좀 보려고 합니다.

01:07:36.542 --> 01:07:37.199
볼게요.

01:07:37.299 --> 01:07:39.779
그녀는 나 천안에 살아,
천안에서 살아.

01:07:39.879 --> 01:07:41.133
이건 무슨 문이에요?

01:07:41.233 --> 01:07:42.537
천안에서 살아.

01:07:42.637 --> 01:07:44.436
평서문, 정보를
전달했으니까 평서문.

01:07:44.536 --> 01:07:48.870
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했더니 그녀는
자기가, 이거는 이따 얘기할게요.

01:07:48.970 --> 01:07:51.451
천안에서 산다고 했다.

01:07:51.551 --> 01:07:55.048
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의
부사격 조사 대신에 뭘 쓴다?

01:07:55.148 --> 01:07:56.389
고를 씁니다.

01:07:56.489 --> 01:07:57.773
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.

01:07:57.873 --> 01:08:02.256
그러면 앞에 부분은 고 앞쪽은
어미가 나와야 되는데.

01:08:02.356 --> 01:08:06.074
이때 현재형 어미로 지금 평서형
어미로 뭐가 쓰였다는 얘기입니까?

01:08:06.174 --> 01:08:08.105
여기 이제 ㄴ 다가
지금 나왔어요.

01:08:08.205 --> 01:08:13.387
그다음 그녀는 너
천안에서 사네라고 했다.

01:08:13.487 --> 01:08:15.508
천안에서 사네라고 했다.

01:08:15.608 --> 01:08:17.140
그녀는, 이거 무슨
문입니까, 그러면?

01:08:17.240 --> 01:08:18.190
사네.

01:08:18.290 --> 01:08:19.391
감탄문이죠.

01:08:19.491 --> 01:08:23.866
그녀는 내가 천안에서
산다고 놀라워 했다.

01:08:23.966 --> 01:08:25.754
놀라워를 안 써도 좋고.

01:08:25.854 --> 01:08:27.390
어쨌든 지금 형태가 동일하죠.

01:08:27.490 --> 01:08:31.159
물론 이 문장에서는 나,
너가 달라졌기 때문에

01:08:31.259 --> 01:08:35.102
이게 지금 무슨 문이구나라는 걸
구분하기가 좀 쉬워지는데.

01:08:35.202 --> 01:08:39.010
가령 이러면 어떨까요?

01:08:58.788 --> 01:09:01.048
이렇게 문장에 나온 거예요.

01:09:01.148 --> 01:09:03.338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다라고 했다.

01:09:03.438 --> 01:09:04.987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네라고 했다.

01:09:05.087 --> 01:09:07.076
평서문이고 감탄문이거든요.

01:09:07.176 --> 01:09:11.349
그럼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
풀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

01:09:11.449 --> 01:09:21.998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다,
그다음에 조사 고 했다.

01:09:22.098 --> 01:09:24.935
둘 다, 둘 다.

01:09:25.035 --> 01:09:28.488
그럼 얘를 다시 직접
인용으로 바꿔보라고 한다면

01:09:28.588 --> 01:09:32.203
이게 원래 평서문이었던 건지
아니면 감탄문이었던 건지는

01:09:32.303 --> 01:09:33.639
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

01:09:33.739 --> 01:09:36.857
종결어미가 평서문과
감탄문의 간접 인용할 때

01:09:36.957 --> 01:09:39.620
풀어주는 종결어미가 동일해져요.

01:09:39.720 --> 01:09:44.938
그래서 원문장이 뭐였지라는
걸 구분하기 쉽지 않죠.

01:09:45.038 --> 01:09:46.056
똑같죠.

01:09:46.156 --> 01:09:49.055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다라고 했다도

01:09:49.155 --> 01:09:52.746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다고
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.

01:09:52.846 --> 01:09:55.199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네라고 했다도

01:09:55.299 --> 01:09:57.886
그녀는 꽃이 정말 예쁘다고
했다로 바꾸는 거죠.

01:09:57.986 --> 01:10:01.074
만약에 감탄문의 느낌을
살리기 위해서라면

01:10:01.174 --> 01:10:04.434
예쁘다고 소리쳤다,
이런다면 살겠지만

01:10:04.534 --> 01:10:07.449
풀어주는 상태에서는

전혀 알 수 없어요.

01:10:07.549 --> 01:10:10.781
이제 그런데 의문문의 경우에는
변화가 좀 있습니다.

01:10:10.881 --> 01:10:13.912
그녀는 너 천안에서 살아라고 했다.

01:10:14.012 --> 01:10:17.026
그녀는 내가 천안에서 사냐고 했다.

01:10:17.126 --> 01:10:20.370
그래서 의문형 어미로 이렇게
냐 같은 걸 쓸 수 있죠.

01:10:20.470 --> 01:10:21.798
명령문일 때는.

01:10:21.898 --> 01:10:26.140
야, 너 천안에서 살아라고 했는데
그녀는 나에게 천안에서 살라.

01:10:26.240 --> 01:10:27.855
이거 주목, 그렇죠?

01:10:27.955 --> 01:10:31.053
이게 여러분, 좀 주목하셔야
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.

01:10:31.153 --> 01:10:35.325
바로 뭐냐면 전에도 한번 명령문
얘기할 때 한 적이 있어요.

01:10:35.425 --> 01:10:42.833
직접 명령문하고 간접 명령문.

01:10:42.933 --> 01:10:46.747
우리 직접 명령문이라고 할
때는 대표적인 어미로

01:10:46.847 --> 01:10:48.850
아라나 어라 쓴다고 했죠.

01:10:48.950 --> 01:10:50.788
그리고 간접 명령문일 때 뭐 쓴다?

01:10:50.888 --> 01:10:52.664
라, 으라 쓴다고 했습니다.

01:10:52.764 --> 01:10:56.115
그런데 이 간접 명령문이라고 하는
건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.

01:10:56.215 --> 01:10:58.594
지면을 통해서 명령을
하는 경우도 있지만

01:10:58.694 --> 01:11:02.374
이렇게 간접 인용문으로
들어갈 때 딱 뭘 쓴다?

01:11:02.474 --> 01:11:05.509
간접 명령문의 어미인 라,
으라를 쓴단 말이에요.

01:11:05.609 --> 01:11:09.777
그래서 이때 그녀는 나에게 천안에서
살아라고 했다, 절대 안 되죠.

01:11:09.877 --> 01:11:11.310
여기도 마찬가지.

01:11:11.410 --> 01:11:14.351
그녀는 너 천안에 살라라고 했다.

01:11:14.451 --> 01:11:15.489
이건 안 돼요.

01:11:15.589 --> 01:11:17.736
살라라고 썼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?

01:11:17.836 --> 01:11:20.158
간접 인용문으로 풀어줘야
된다는 얘기인데

01:11:20.258 --> 01:11:22.821
직접 인용문 안에 살라,
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

01:11:22.921 --> 01:11:26.586
그래서 살아라 또는 살아
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의

01:11:26.686 --> 01:11:28.796
명령 어미를 사용하는 거죠.

01:11:28.896 --> 01:11:29.699
이게 차이가 나고.

01:11:29.799 --> 01:11:33.466
또 밑에도 살자라고 했다,
그것도 천안에서 살자고 했다.

01:11:33.566 --> 01:11:36.018
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
이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.

01:11:36.118 --> 01:11:38.844
이건 외워요, 이건
외우도록 하시고.

01:11:38.944 --> 01:11:45.211
외우도록 하시고, 직접 인용에
안긴 문장의 종결형 어미가

01:11:45.311 --> 01:11:51.526
평서형이냐 청유형이냐 의문형이냐
명령형이냐 등등에 따라서

01:11:51.626 --> 01:11:55.950
간접 인용으로 풀었을 때 조사

앞에 나와 있는 어미의 형태가

01:11:56.050 --> 01:11:58.428
바뀌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.

01:11:58.528 --> 01:12:00.441
얘예요, 사실은.

01:12:00.541 --> 01:12:03.930
제가 봤을 때 문제화될 만한
부분은 딱 이 부분이거든요.

01:12:04.030 --> 01:12:05.374
잘 보세요.

01:12:05.474 --> 01:12:07.502
간접 인용의 특징입니다.

01:12:07.602 --> 01:12:09.935
맥락은 같아요.

01:12:10.035 --> 01:12:12.746
물어봤어요, 상대방이 집에
가는지를 물어봅니다.

01:12:12.846 --> 01:12:15.337
그런데 뭐가 바뀌었죠?

01:12:15.437 --> 01:12:19.355
집이 댁으로 바뀐 것은 적절하게
어휘를 바꿔준 것뿐이고.

01:12:19.455 --> 01:12:22.288
종결 어미의 높임 체계가 바뀌죠.

01:12:22.388 --> 01:12:23.289
뭡니까?

01:12:23.389 --> 01:12:24.906
하십니까, 하십시오체죠.

01:12:25.006 --> 01:12:26.575
가시오 그러면 하오체.

01:12:26.675 --> 01:12:28.444
그다음에 가요, 해요체.

01:12:28.544 --> 01:12:31.060
얘네는 일단 상대를
높이기 위한 거죠.

01:12:31.160 --> 01:12:33.297
격식체이고, 비격식체이고.

01:12:33.397 --> 01:12:37.616
다음, 집에 가는가 그러면
하게체가 되는 거죠.

01:12:37.716 --> 01:12:39.805
집에 가니, 해라체죠.

01:12:39.905 --> 01:12:41.516
집에 가, 해체죠.

01:12:41.616 --> 01:12:45.417
얘네는 낮춤의 계열이고,
얘네는 격식, 비격식.

01:12:45.517 --> 01:12:46.987
기억하십니까, 높임법?

01:12:47.087 --> 01:12:48.940
그래서 이렇게 달라요.

01:12:49.040 --> 01:12:55.622
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
그는 댁에 가십니까라고 했다.

01:12:55.722 --> 01:12:57.684
집에 가시오라고 했다.

01:12:57.784 --> 01:12:58.883
집에 가요라고 했다.

01:12:58.983 --> 01:13:00.549
이때 직접 인용이잖아요.

01:13:00.649 --> 01:13:02.820
이걸 간접 인용으로
풀겠다는 겁니다.

01:13:02.920 --> 01:13:04.739
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

01:13:04.839 --> 01:13:07.736
다 이거야, 어쨌든.

01:13:07.836 --> 01:13:10.972
그는 집에 가냐고 물었다.

01:13:11.072 --> 01:13:14.793
집에 가시냐고 물었다는 이 정도는
쓸 수 있어요, 그렇죠?

01:13:14.893 --> 01:13:19.283
이 정도는 가시냐고 물었다 쓸 거지만
나머지는 가냐고 물었다로 풀려요.

01:13:19.383 --> 01:13:24.951
즉, 직접 인용문일 때는 상대 높임의
정도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

01:13:25.051 --> 01:13:28.199
정보가 나오지만, 간접
인용문으로 풀어 버리게 되면

01:13:28.299 --> 01:13:30.357
상대 높임의 정도를 알 수 없어요.

01:13:30.457 --> 01:13:33.715
대충 상대를 높였는지
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,

01:13:33.815 --> 01:13:36.326
정확하게 무슨 체를 썼는지는
알 수 없다는 거죠.

01:13:36.426 --> 01:13:39.895
그게 바로 첫 번째 특징, 상대
높임의 정도를 알 수 없게 된다.

01:13:39.995 --> 01:13:45.642
또는 다른 말로 높임의 정도가 중화된다
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

01:13:45.742 --> 01:13:48.743
다음.

01:13:48.843 --> 01:13:53.488
이러한 말들이 간접 인용으로
풀면 어떻게 바뀔까요?

01:13:53.588 --> 01:13:57.260
그는 내가 낼게라고 말했다를
간접 인용 풉니다.

01:13:57.360 --> 01:13:59.496
그는 내가 낸다고 말했다.

01:13:59.596 --> 01:14:01.089
아니죠.

01:14:01.189 --> 01:14:03.945
내가 아니라 자기가로 바뀔 거예요.

01:14:04.045 --> 01:14:06.680
다음, 내가 거기로
갈게라고 했는데 그 거기가

01:14:06.780 --> 01:14:10.513
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
여기를 얘기하는 거야.

01:14:10.613 --> 01:14:12.037
그럼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?

01:14:12.137 --> 01:14:15.505
그는 자기가 여기로 온다고.

01:14:15.605 --> 01:14:18.487
거기로 간다가 아니라
여기로 온다고.

01:14:18.587 --> 01:14:20.034
어제 얘기했대요.

01:14:20.134 --> 01:14:23.065
그는 어제 내일 보자라고 했다가

01:14:23.165 --> 01:14:26.973
그는 어제 오늘 보자고
했다가 되어야 되겠죠.

01:14:27.073 --> 01:14:28.288
무슨 얘기냐?

01:14:28.388 --> 01:14:30.442
이거를 좀 주목해 보세요.

01:14:30.542 --> 01:14:35.215
나라고 하는 그 어휘가
자기, 재귀대명사죠.

01:14:35.315 --> 01:14:37.042
바뀝니다.

01:14:37.142 --> 01:14:43.265
공간을 지시하는 표현이
주체가 내 입장이기 때문에

01:14:43.365 --> 01:14:46.391
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의
여기라고 바뀌게 되죠.

01:14:46.491 --> 01:14:49.151
또 시간성의 어휘들도
변할 수 있어요.

01:14:49.251 --> 01:14:54.268
어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는 어제
내일 보자라고 했다가 아니라

01:14:54.368 --> 01:14:56.399
오늘 보자고 한 거잖아요, 결국.

01:14:56.499 --> 01:14:59.280
인칭, 지시, 시간 표현
등에 변화가 생깁니다.

01:14:59.380 --> 01:15:01.813
그러니까 문제는 어떤
거냐면 직접 인용문을

01:15:01.913 --> 01:15:07.980
간접 인용문으로 잘 푼 것을
골라내라라는 방식이 예상 문제예요.

01:15:08.080 --> 01:15:09.690
와, 여름이다.

01:15:09.790 --> 01:15:11.481
좀 기다려 주세요.

01:15:11.581 --> 01:15:15.370
직접 인용이었을 때는 그는
와, 여름이다라고 소리쳤다.

01:15:15.470 --> 01:15:17.970
그는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.

01:15:18.070 --> 01:15:19.580
그대로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.

01:15:19.680 --> 01:15:24.368

그런데 간접 인용으로 풀었다고 한다면
그는 와, 여름이다고 했다.

01:15:24.468 --> 01:15:26.820
이상하잖아.

01:15:26.920 --> 01:15:27.972
그럼 뭡니까?

01:15:28.072 --> 01:15:29.726
감탄사 같은 거 빠져야겠죠.

01:15:29.826 --> 01:15:33.142
또 좀 기다려 주세라고,
기다려 주시라고 했다.

01:15:33.242 --> 01:15:34.135
이상하잖아.

01:15:34.235 --> 01:15:35.105
어떻게 바뀌어야 되죠?

01:15:35.205 --> 01:15:36.757
그는, 일단 뭐가 빠집니까?

01:15:36.857 --> 01:15:37.957
감탄사 빠지고.

01:15:38.057 --> 01:15:42.632
그는 조금 기다려 주라가 아니라
달라고, 어휘로도 바뀌죠.

01:15:42.732 --> 01:15:47.198
그래서 단어가 빠지든지 또 변화가
일어나든지 하는 변화들도 생깁니다.

01:15:47.298 --> 01:15:50.592
그래서 여러분이 직접
인용문과 간접 인용문.

01:15:50.692 --> 01:15:52.473
간접을 직접으로 풀라고는 안 해요.

01:15:52.573 --> 01:15:56.712
직접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풀어보는
걸 이제 정확하게 풀었는지를

01:15:56.812 --> 01:16:00.171
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
걸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.

01:16:00.271 --> 01:16:03.034
이제 인용문까지 봤습니다.

01:16:03.134 --> 01:16:07.804
그러면 우리가 문법 요소를
공부를 다 한 거거든요.

01:16:07.904 --> 01:16:09.923
다음 시간에는 단어의
의미 관계에 대해서

01:16:10.023 --> 01:16:11.574
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16:11.674 --> 02:59:07.924
다음 시간에 뵐게요.